2023 12 VOL. 202

# 문화 + 서울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3 12 VOL. 202

## 중랑구

중랑문화재단은 12월 6일 오후 7시 30분, 중랑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지휘와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개최한다. 뉴월드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박연후·정지우(바이올린), 이윤석(하모니카), 지익환(기타) 등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들의 협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중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서울시 자치구 소식

###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선 100여 년 전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의 100년을 기억하며 《서용선 프로젝트: 암태도》가 2024년 5월 5일까지 열린다. 비축기지 내 T5(이야기관·영상미디어관), T6 문화아카이브, 야외 산책로에 걸쳐 진행되며,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 도봉구

도봉문화재단은 쌍문동 우이천 옆에 위치한 쌍문채움도서관에서 12월 14일 목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성용원·테너 부서훈·첼리스트 강지현이 무대에 오르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단, 도봉구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잊지 말 것.

###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 지하보도에 위치한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 12월 8일까지 《유실언어보관소》 전시가 열린다. 김산탈·우주언·이주영 작가 세 사람이 불완전한 언어를 소재로 평면·설치·영상·웹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관람은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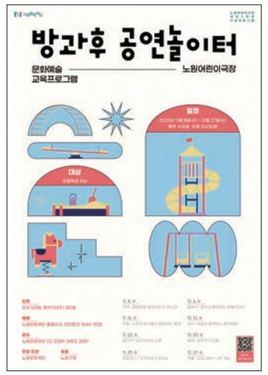
###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송년음악회 〈서대문 Winter Story〉를 12월 8일 오후 7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연다. 지휘자 함신익과 심포니송이 함께하며, 서대문구립합창단과 유수의 성악가들이 협연한다. 송년 단골 레퍼토리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피날레,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좌석 예약은 선착순 무료로 진행되며, 서대문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진행하면 된다.

### 종로구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확산의 장을 만드는 종합 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이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A동 내에 개소했다. 이곳은 예술인과 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성장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주기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문화예술 기관과 일반 기업이 많은 광화문 지역에 문을 열어 접근성을 확보했다. 아트코리아랩은 분야 간 융합 실험을 할 수 있는 4개의 스튜디오, 다목적 스튜디오, 사운드 스튜디오, 이미지 편집실을 운영하며, 예술인 누구나 첨단 장비를 손쉽게 활용해볼 수 있도록 전문 테크니션이 상주한다. 이외에 맞춤형 기술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융합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실험무대)를 지원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이듬해 3월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노원구

노원어린이극장은 개관 3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공연놀이터〉를 12월 27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매주 다른 장르의 공연 관람과 체험을 준비했다. 12월에는 클래식 음악·성악·발레·전통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티켓은 회당 6천 원이며, 노원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 공연

©Marco Borggreve

### 〈손열음의 커튼콜〉

세련된 예술성과 한계 없는 테크닉으로 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청중의 사랑을 받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또 한 번 남다른 기획력을 선보인다. 2017년 시작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손열음의 커튼콜〉 이야기다. 올해는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첼리스트 유지인, 플루티스트 조성현, 오보이스트 함경, 작곡가 손일훈과 함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재기발랄한 기획으로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동시대 음악의 매력을 들려준 그가 이번 무대에선 어떤 연주를 선사할지 기대가 된다.

**12월 28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733.0301**

### 새벽두시 낭독 쇼케이스 〈레디 메이드〉

주로 무언가로부터 소외된 인물에 관심을 두고 창작 활동하는 새벽두시가 낭독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인다. 2021년 관객 참여형 레퍼토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_끝나지 않는 벚꽃엔딩〉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심야살롱연극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_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선보였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작품이다. 채만식의 원작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을 도전적인 표현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했으며, 1930년대를 배경으로 실직한 인텔리 P의 시선으로 인간관계의 긴장과 소외감, 현실에 대한 좌절을 그려냈다. 낭독 쇼케이스 이후 피드백을 거쳐 이듬해 본 공연으로 공연한다.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 민송아트홀 2관**
**010.6202.2984**

©양는남은

### 음악극 〈나는 재미있는 낙타예요〉

생후 1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은 헬렌(헬렌 켈러)과 어린 시절 시각장애를 겪은 애니(앤 설리번)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음악극. 배우이자 소리꾼 정지혜와 배우 한송이, 단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 주인공의 성장과 연대를 이야기한다. 판소리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운율감 넘치는 대사, 수어와 촉지화를 활용한 동작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두 인물의 세계를 그려낸다. 극공작소 마방진에서 활동하는 연출가 겸 극작가 홍단비가 대본을 쓰고, 이기쁨이 연출했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02.2280.4114**

### 김민지 첼로 리사이틀 〈사계〉

바흐 전곡 연주를 선보이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첼리스트 김민지가 비발디·피아졸라의 '사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두 거장의 명곡과 더불어 조반니 솔리마의 작품도 첼리스트 김두민의 협연으로 소개한다. 바로크와 현대음악의 매력에 동시에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관객 여러분을 초대한다.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02.780.5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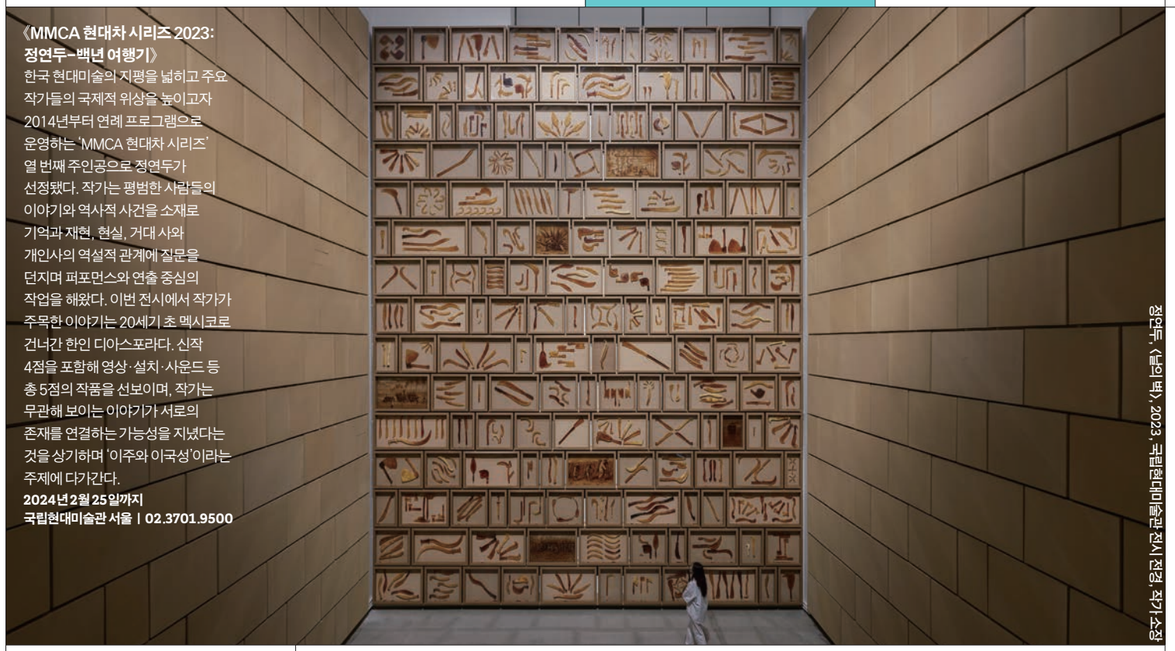
©국립극장

### 쿼드클래식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2023년 대학로극장 쿼드가 준비한 겨울 클래식! 유키 구라모토의 콘서트가 열린다. 거의 매해 내한하며 특별히 한국 관객에게 애정을 표현해온 그가 아름답고 고즈넉한 연말을 만들어줄 계획이다. 1998년 발매한 음반의 수록곡인 'Lake Louise', 'Meditation' 등 오랜 시간 사랑받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극장을 가득 채운다.

**12월 20일 오후 7시 30분 | 대학로극장 쿼드**
**1577.0369**

전시



**《MMCA 현대차 시리즈 2023: 정연두-백년 여행기》**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주요 작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2014년부터 연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 열 번째 주인공으로 정연두가 선정됐다.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기억과 재현, 현실, 거대 사와 개인사의 역설적 관계에 질문을 던지며 퍼포먼스와 연출 중심의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주목한 이야기는 20세기 초 멕시코로 건너간 한인 디아스포라다. 신작 4점을 포함해 영상·설치·사운드 등 총 5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작가는 무관해 보이는 이야기가 서로의 존재를 연결하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주와 이국성'이라는 주제에 다가간다.
**2024년 2월 2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02.3701.9500**

정연두, 〈낯의 벽〉, 2023,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전경, 작가 소장

**63인의 서울예술인 NFT 전시**
**《ANOTHER STAGE DEBUT》**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정책 방향과 NFT 시장 확대 등 급변하는 미래 예술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의 NFT라는 새로운 디지털 예술 환경 진입과 자생력 확보를 돕는 '서울예술인 NFT'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술인 63명의 개성이 담긴 NFT 디지털 아트 작품을 제작하고 선보이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온라인 환경에서만 경험할 수 있던 NFT 작품을 실제로 보고 즐길 기회. 연극·무용·전통·음악 등 분야 예술인이 참여한다. 전시는 종로구 소재 세화미술관에서 열리며, 첫날 오후 2시에 오프닝이 진행된다.
**12월 12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세화미술관 | 02.3290.7054**

**《구본창의 항해》**
2024년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개관을 앞둔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 현대사진뿐만 아니라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구본창의 회고전을 12월 14일 개막한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진의 시작과 전개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해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다. 작가이자 기획자로 1988년 워커힐미술관에서 개최한 《사진, 새 시좌》는 '연출 사진'이라는 새 형식으로 국내 사진계와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이라는 매체에 부여된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회화·조각·판화 등 다양한 매체의 속성을 반영해 주관적 표현이 가능한 예술 세계로 승화한 작가의 작품은 한국 현대 사진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중학생 때 촬영한 〈자화상〉을 시작으로 50년 넘는 세월을 찬찬히 짚어간다. 열성적으로 자기 삶과 기록을 수집해온 작가답게 출품된 작품만 500여 점, 자료 또한 600여 점에 달한다.
**12월 14일부터 2024년 3월 1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 02.2124.8868**

구본창, 〈Ocean 02-1〉, 1999



축제/행사

**서울스테이지11**
매월 첫째 목요일, 서울문화재단에서 펼쳐지는 예술 공감 콘서트.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무대로 클래식 음악·무용·국악·재즈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12월 7일 정오에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와 시민청 두 곳에서 공연이 진행된다. 대학로센터 1층 올라운지에서는 일상과 웃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위한 트리오 이백이의 〈Dear ALL.〉, 시민청에서는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연인 오왠·정예원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 펼쳐진다. 관람을 예정하고 있다면 서울스테이지11 인스타그램(@seoulstage11)에서 미리 확인해 예약을 해두는 것도 좋겠다.

**제1회 서울공예문화축제**
경복궁 자경전을 본떠 만든 한국의집에서 제1회 서울공예문화축제가 열린다. 시민과 공예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장인을 초대해 공예 작품을 선보이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공예문화를 활성화하는 자리다. 공예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는 요즘, 공예의 본질인 재료와 장인을 주목하고자 한다. 축제는 12월 17일과 18일 '공예,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맛과 멋, 흥, 창을 두루 조망하는 전시·공연·체험·놀이·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이틀간 오후 3시에는 도슨트와 함께 한국의집 전 구역을 탐방하는 '공예투어'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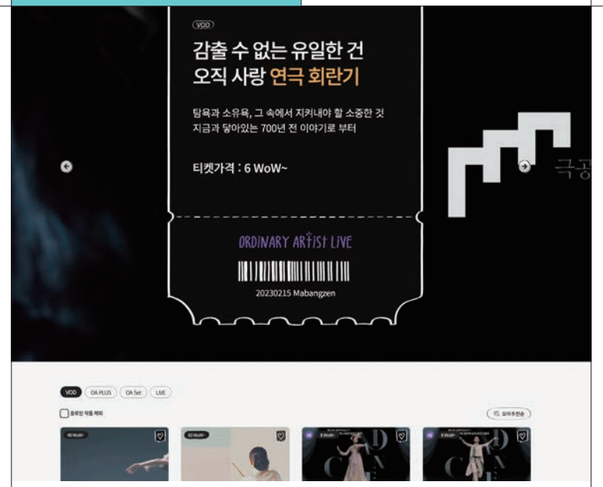
**서울윈터페스타 2023**
12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서울 도심이 빛으로 물든다. 빛과 색의 화려한 행사를 선보이는 '서울윈터페스타'가 올해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 기간 DDP·보신각·세종대로·광화문광장·송현열린광장·청계천·서울광장 등 서울 내 상징적 장소 7개소에서 화려한 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시선을 사로잡는 미디어 파사드와 생동감 넘치는 조명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 : 달로 가는 정거장》**
융합이 새로움의 기준이 되는 시대, 2023년 서울문화재단은 첨단 기술 기반 예술 창작의 현주소를 제시하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를 서울시민과 함께 향유하고자 한다. 미디어아트의 거장 백남준 작품과의 만남, 미디어 거울과의 놀이, 휘몰아치는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하는 경험까지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융합예술 분야 유수 작품으로 구성한 전시와 강연 및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는 12월 13일까지(월요일 휴관),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7시까지 문화역서울284 본관에서 계속된다.

**애플리케이션 '우리앙상블'**

전통예술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자기주도 학습 전통예술 교육교재인 '우리앙상블(우앙)'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우앙'은 2019년 출시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혼자 하기 어려운 국악 합주나 궁중무용을 안내에 따라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국악기를 선택하면 혼자서도 합주 연습이 가능하며, 접하기 쉽지 않은 춘앵전·무산향 등 정재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

## 온라인 콘텐츠




**오아라이브**

'당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온라인 극장'을 모토로 나서는 오아라이브는 평범한 예술가를 위한 공연예술 스트리밍 플랫폼을 표방한다. 오프라인 공연의 대체 콘텐츠가 아닌, 공연예술 영상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공연예술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려는 것. 오아라이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는 물론, 공연에 연계된 제작진과 배우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감명 깊게 본 공연이 있다면 후원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공연 중계만 아니라 연출가 고선웅의 '사랑받는 연출가의 비밀', 뉴욕 필 김예진 프로듀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미국 비영리 예술기관의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온라인 전시《막걸리, 거친 일상의 벗》**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오래된 술, 막걸리 이야기를 전시로 펼쳐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때 국립민속박물관이 처음 시도한 온라인 특별전으로, 이후에도 반응이 좋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전시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해온 '막걸리'라는 친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는 자리를 제안한다. 1부 '막걸리를 알다'에서는 막걸리에 대한 상식과 역사를 소개하며, 2부 '막걸리를 빚다'에서는 술을 빚는 방법과 공간,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3부 '막걸리를 나누다'에서는 막걸리를 마시고 나누면서 일어난 여러 사회적 현상과 개인의 기억, 소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정동월요랜선극장**

국립정동극장은 연말 시즌을 맞아 자체 제작 공연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무료 상영한다. 올해 선보인 공연 4편을 국립정동극장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동월요랜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는 것. 12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콘서트 〈비밀의 정원〉과 뮤지컬 〈비밀의 화원〉이 서로 다른 캐스팅으로 상영된다. 특히 〈비밀의 화원〉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창작뮤지컬 신작으로, 올해 DIMF어워즈 아성 크리에이터상과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동화 같은 작품이니 놓치지 말 것.



**Scene**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02 서울시 자치구 소식

03 공연

04 전시

05 축제/행사

06 온라인 콘텐츠


**Focus**


**안녕! 시민청&삼일로창고극장**

10 시민청
문화로 연결한 시민의 사랑방
2013–2023

18 삼일로창고극장
그럼에도 이어질 극장의 생태
since 1975


**Associated**


28 예술가의 진심
매일을 가르는 구본창의 항해

36 페이퍼로그
배려와 취향이 깃든 세계
시설안전2팀 이진

38 인사이드
우리가 지금 신파를 하는 이유
〈신파의 세기〉에 관한 대화

42 인사이드
문턱은 낮추고 고충은 헤아리며
2024 원로예술지원

43 인사이드
예술 아이디어에 가능성을 더하다
예술플러스창업

44 예술단체 아카이브
고스트그룹
음악그룹 더튠

46 트렌드
레지테아터,
현시대 극장과 오페라의 경향

48 트렌드
유튜브를 보고선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

50 해외는 지금
육아와 공연을 병행할 수 있을까?


**Column**


54 삶의 책장을 넘기며
안녕이라는, 책으로 건네는 인사

56 동시대적 고전 읽기
이야기를 사랑한 사람들의 역사

58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박서보

60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어설픈 작사론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안미영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 안녕! 시민청&삼일로창고극장

서울의 중심에서 각각 시민과 연극인의 사랑방이 돼주던 공간 두 곳에 대한 서울문화재단 위탁 운영 종료 소식이 들려왔다. 이들과 헤어짐이 유독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람이 차가워서, 한 해의 마지막 무렵이라서만은 아닐 것이다. 2013년 1월 서울시청사 지하에 문을 연 시민청과, 1975년 개관해 문을 여닫기를 반복하다 2018년부터 공공의 품에 들어온 삼일로창고극장. 그 곁에서 시절을 함께해온 이들이 지난 이야기를 전해왔다.

김상원 서울문화재단 시민청팀장

# 문화로 연결한 시민의 사랑방

## 2013-2023

시민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난 10년을 몸소 경험하고 차근차근 기록해온 김상원 팀장이 그간 품어온 소회를 전했다.

↑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발견된 군기시 터의 유구와 유물을 전시한 군기시유적전시실

↗ 다양한 정책 토론과 주요 행사가 열리는 태평홀

→ 소규모 공연이 열리는 바스락홀

시민청은 2013년 1월 12일 서울시청사 지하 1·2층에 8,150m² 규모로 개관했다. 지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 주도 공간이 많이 생겨났지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모델이었다. 현재 각지에 있는 시민 주도 공간 모델의 초석이 시민청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시민청 위탁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시민청은 2024년 10월 공간 운영을 종료하고 서울시정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 기관은 최장 연속 10년까지 위탁 운영할 수 있기에 서울문화재단은 개관한 지 꼬박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특별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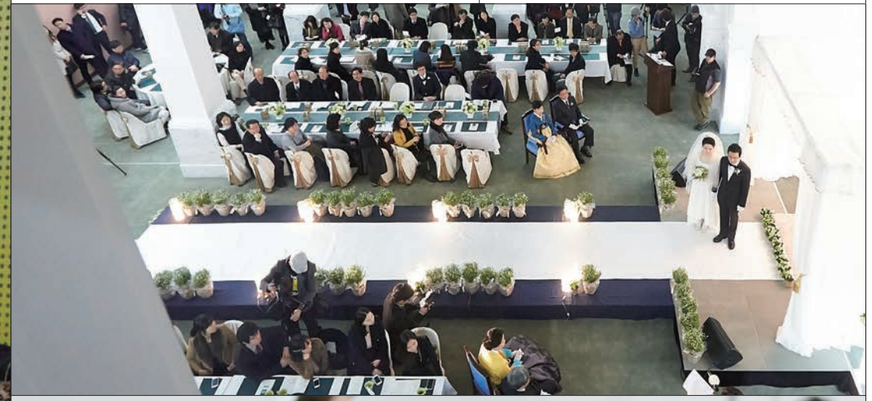
## 하나,
## 최초이기에 특별했던 개관

시민청은 2012년 3월 5일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해인 2013년 1월 12일 개관했다. 신청사 건립 막바지에 고심하던 서울시는 계획 중에 있던 시정홍보관 서울시티갤러리(서울홍보관)를 대신해 청사 내 시민을 위한 복합적인 소통 공간을 염두에 두게 됐다. 서울시티갤러리는 시정 홍보 위주의 일방적인 소통에 국한될 수 있고, 기존의 공공 청사가 사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 과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비움과 유연성 있는 공간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 소통 공간을 목표로 내세웠다.

← 사랑방워크숍 도시사진전 풍경
↙ 시민청예술가가 참여하는 활력콘서트
↓ 작은 결혼식과 예비부부 교육

개관 당일 하루에만 1만 명 넘는 시민이 시민청에 방문해 함께 축하했다. 개관 전부터 새로운 서울시청사 내에 오직 시민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는 이슈가 연이어 발표된 만큼, 시민청은 서울시민에게 한동안 가장 재미난 공간이 됐다. 개관 당일에는 특별한 행사보다는 간소화된 제막식을 진행하고, 모든 공간에서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마음살림장〉, 〈활력콘서트〉, 〈사랑방워크숍〉, 〈바스락콘서트〉 등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시민청이 가득 찼다. 가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시민청 〈작은 결혼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결혼식으로, 개관일에 맞춰 〈작은 결혼식〉의 취지를 밝히고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고심 끝에 당시 25세 동갑내기 서현진&권명준 씨가 1호 커플로 시민청 태평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방문한 모든 시민이 함께 축하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 둘,
## 모든 시민이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곳

〈활력콘서트〉와 〈사랑방워크숍 도시사진전〉은 2013년 개관부터 시작해 2023년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된 대표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시민예술가가 주도하고 시민이 관람한다는 것이다. 〈활력콘서트〉는 매년 공개 오디션으로 선정된 시민청예술가가 많게는 매일, 적게는 매주 이틀(화·목요일) 점심시간에 공연했다. 그동안 613여 명의 시민청예술가가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공연했다.

〈사랑방워크숍 도시사진전〉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작가가 두 달 동안 서울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한 탐사 사진을 전시로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첫해 전시는 시민청에서 열렸고, 마지막인 올해는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진행했다. 사진의 퀄리티도 훌륭하고, 참여 시민작가의 도전정신도 대단하다. 전시 기간 어느 시민작가의 가족이 찾아와 건넨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작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시민청이기에 펼쳐질 수 있었다. 모든 시민은 시민청에서 예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셋,
## 작지만 뜻깊은 나만의 작은 결혼식

앞서 이야기한 1호 커플 이후에도 시민청 〈작은 결혼식〉은 한동안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선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식 이벤트로만 끝나지 않고 〈부부교육〉이라는 새로운 소통 교육을 추가해 의무로 이수하도록 했다. '스몰 웨딩' 열풍과 함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식장으로 인기가 높아 한때 경쟁률이 30 대 1에 이르기도 했다. 결혼식은 취지에 맞게 축의금을 제한했고, 시민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최저 예산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2015년 가을, 사과농장 아들 부부가 결혼식에 꽃장식 대신 사과를 가득 올려 장식한 풍경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새로운 결혼 문화를 선도한 시민청 〈작은 결혼식〉을 통해 2019년 코로나19 창궐 전까지 총 203커플이 탄생했다.

## 넷,
## 시민을 위한 기획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청은 가장 많은 시민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함께 협력해 운영했다. 다만, 처음에는 일반적인 자원활동가 성격의 '시민청 서포터즈'를 기본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1년 뒤인 2014년, 시민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더욱 선진화된 시민 거버넌스를 기획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가 '시민기획단'이다. 또한 자체 운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소통', '동행', '광장', '갤러리' 총 4개 분과로 분리해 매년 30~50여 명의 시민기획단을 선발했다. 높게는 경쟁률이 30 대 1에 이를 만큼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부모부터 자식까지 세대가 함께 서울시청에서 시민을 위해 활동한 것이다.

↑ 2022년 시민디렉터 기획 프로그램
→ 2014년 시민기획단 기획 전시

기획단은 분과별 활동 외에도 〈모두의 시민청〉과 각각의 캠페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시민청을 서울시 대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했다. 무엇보다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지원 없이 자원 활동만으로 만들어진 결과이기에 더욱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기획단에 참여한 인원은 10년 동안 총 525명이다. 이후에는 '공동운영단', '시민디렉터'까지 추가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했다.

## 다섯,
## 권역형 제2시민청 개관

2018년 4월 28일, 서울시청사 내 최초의 시민청이 문을 연 지 5년 만에 권역형 시민청을 동북권에 개관했다. 이 역시 서울시청 시민청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위탁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을 개통하면서 솔밭공원역사 내 지상 2·3층으로 조성된 공간을 활용해 제2시민청을 개관했다. 독특한 것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1동은 강북구 우이동, 2동은 도봉구 쌍문동에 조성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지역적 안배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 모태가 시민청이기에 활짝라운지·워크숍룸 등 공간 명칭도 비슷했고, 〈활력콘서트〉, 〈사랑방워크숍〉과 같은 시민청 대표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운영됐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이 참여하는 〈할머니 동화책〉, 지역 어린이 대상 〈수요창작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마스터플랜은 제5시민청까지 계획했으나, 아쉽게도 제2시민청에서 끝났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2020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한 삼각산시민청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앞에 개관한 제2시민청

## 마지막, 지난 10년의 기록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시민청에 약 1,519만 명, 일평균 약 4,500명이 다녀갔다. 프로그램은 총 8,784건, 참여자는 약 482만 명이다. 수치로만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밝히는 사실은, 서울문화재단 직원도 총 76명이 이곳을 거쳐갔다는 것이다. 당초 시민청 운영을 왜 서울문화재단이 맡아야 하는지 여기저기서 물음이 많았다. 이유는 당연하다.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데 가장 좋은 촉매제가 '문화'이기 때문이다.

↓ 시민기획단이 준비한 〈모두의 시민청〉

지금까지 10년의 시민청을 기록한 저는 서울문화재단 시민청팀장 김상원입니다. 저는 서울문화재단 시민팀에 처음 입사해 돌고 돌아 지금은 시민청팀장으로 공간의 마무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공간도 사람의 생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 공간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만큼 마무리도 잘하고 싶어, 이렇게 제가 직접 정리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 시민청을 다녀가신 1,600만 시민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기회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 그럼에도 이어질 극장의 생태

## since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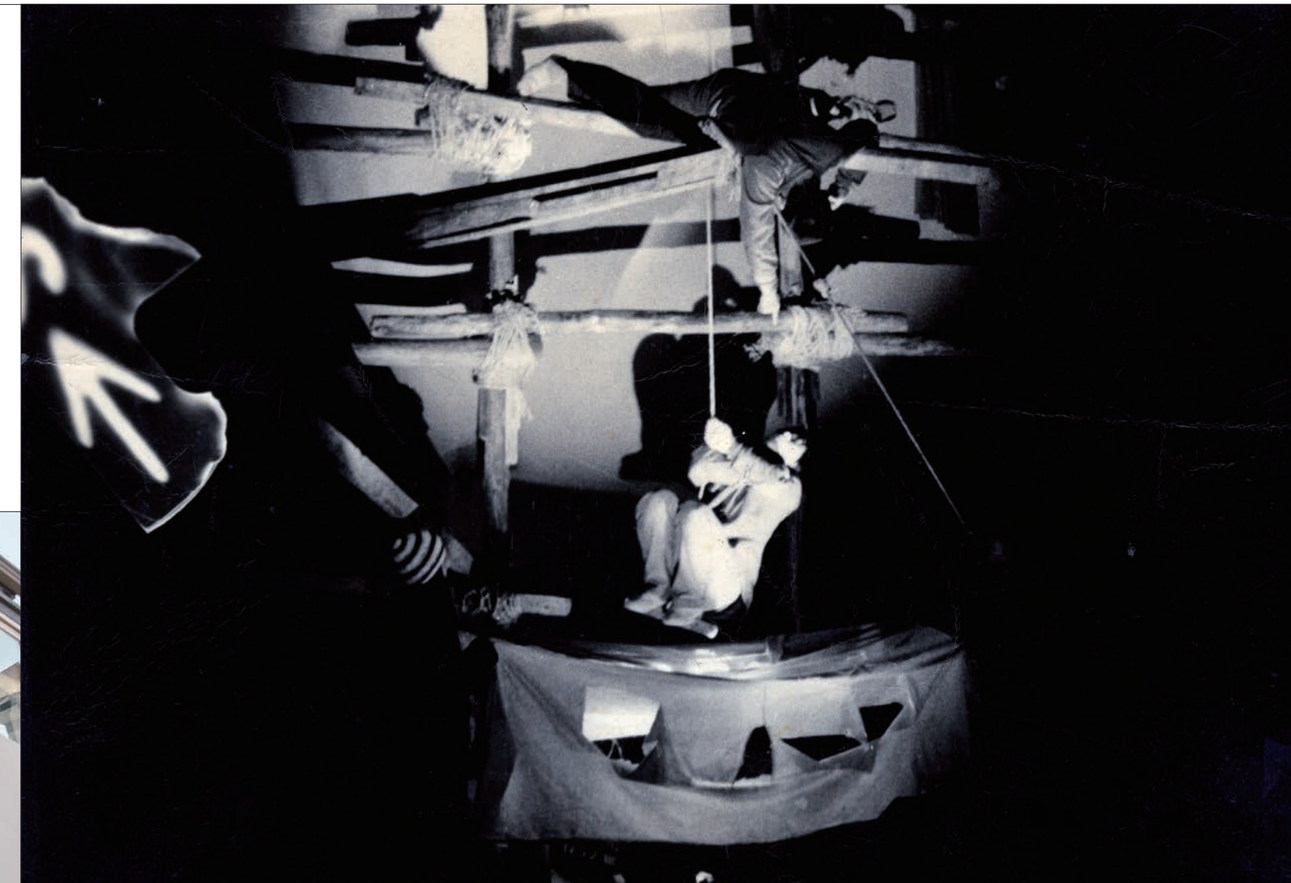
숱한 재정난으로 문을 여닫기를 거듭하다 2018년 서울문화재단 위탁 운영으로 부활한 삼일로창고극장. 몇 번째일지 모를 다음 장면을 준비하며 함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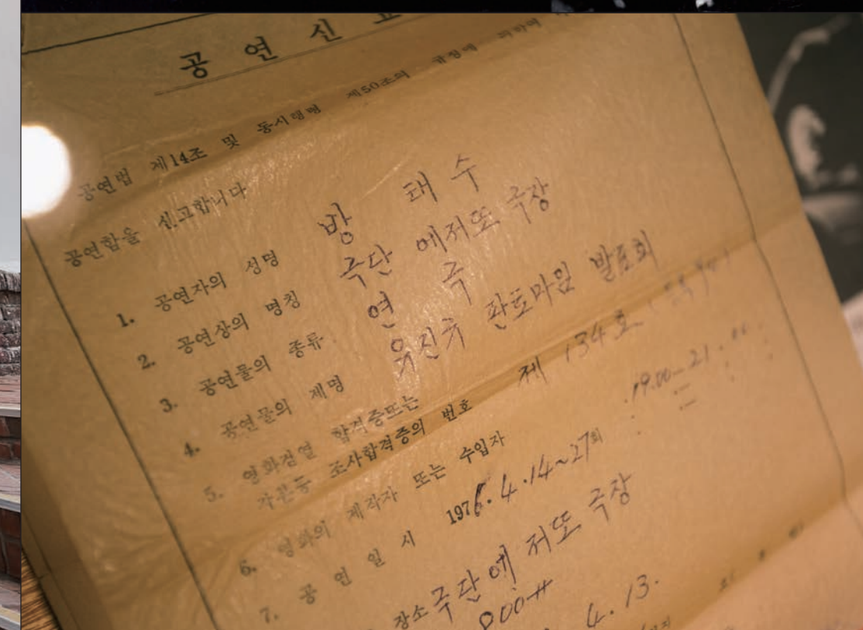
### 에저또에서 삼일로까지

어느 예술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1970년대는 작품을 올리고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자본과 시설이 갖춰진 극장들은 대부분 국가 주도의 국책 사업으로 지정된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예술가의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없었고, 이에 민간 주도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명동 일대에 다양한 소극장이 생겨납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극단 에저또의 방태수 대표와 단원들이 명동성당 옆 언덕길에 위치한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극장에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국내 최초로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는 아레나 무대를 구현한 '에저또 창고극장'이었습니다. 추송웅 배우가 운영하는 '떼아뜨르 추 삼일로' 시절 〈빨간 피터의 고백〉은 초연 이후 4개월 동안 관객 6만 명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송웅 배우가 타계한 후 극장 운영은 잠시 중단됐다가 극단 로얄씨어터에 의해 다시 '삼일로창고극장'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극장은 운영 주체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운영 종료의 이유는

↓ 삼일로창고극장 구 매표소






↑ 1975년 12월 20일 극단 에저또 〈잔네비는 돌아오는가〉(방태수 소장)
← 1976년 작성된 공연신고서

대부분 '재정난'이었습니다. 심지어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약 8년간은 극장이 아닌 인쇄소나 김치공장으로 운영된 경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숱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개관과 폐관을 거듭하며 삼일로창고극장이 계속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개관한 이래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설 자리'가 없었던 연극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실험적인 공연을 시도해볼 수 있는 보금자리 같은 공간이었기 때문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서울미래유산 아카이브에 수록된 인터뷰 중에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삼일로창고극장을 운영한 윤여성 대표의 그 시절

↑ 2018년 재개관 당시 소개한 삼일로창고극장의 지난 역사
→ 삼일로창고극장 문주와 내부 모습

에피소드를 들여다보면 어렴풋이 이 공간이 당시 연극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배우가 창고극장에 드나들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된장찌개에 배추 같은 걸 넣어서 끓여주곤 하셨다. 시장 보는 당번이 있어, 그들이 남대문에 가 쌀도 사고 밑반찬도 샀다. 어떨 땐 한 끼에 오십몇 명이 같이 밥을 먹었다. 지금도 가끔 지나가다 우연히 탤런트가 된 후배들을 만나면, 그들이 그때 고마웠다는 인사를 한다. 배고팠을 때 거기에 가면 밥을 줬다는 거다."

삼일로창고극장을 소개할 때면 으레 '소극장 운동의 산실', '실험적 연극의 시도' 같은 수사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이야기들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장면들을 상상해볼 수 있게 됩니다.

모진 추위에 잠시 몸 녹이고, 정다운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작품 이야기도 하고, 꿈도 꿀 수 있는 '사랑방'이자 '아지트'가 삼일로창고극장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 온기가 지금의 삼일로창고극장에도 전해졌을까요?

## 2018년, 공공의 품에 안기다

개관과 폐관을 반복하며 명맥을 유지해오던 삼일로창고극장은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고, 2018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위탁 운영으로 재개관하면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민간 소극장으로 시작한 삼일로창고극장이 시민과 현장 예술가의 노력으로 공공의 품에 처음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극장은 현장 예술가, 서울문화재단 직원으로 구성된 공동운영단이 6년간 운영했습니다. 실험 정신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며 시장의 논리에서 좀 더 자유로운, 실험과 탈경계를 지지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경계를 허무는 시도들도 해왔습니다.

1975년이나 지금이나 예술가들은 늘 작품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가의 '설 자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관료를 저렴하게 하고 장벽을 낮춰 진입 단계의 예술인이 마음껏 이용하고 실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삼일로창고극장은 '문턱이 낮은 극장'을 선택했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재개관 후에도 여느 때처럼 언제든 동료 예술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이어오고자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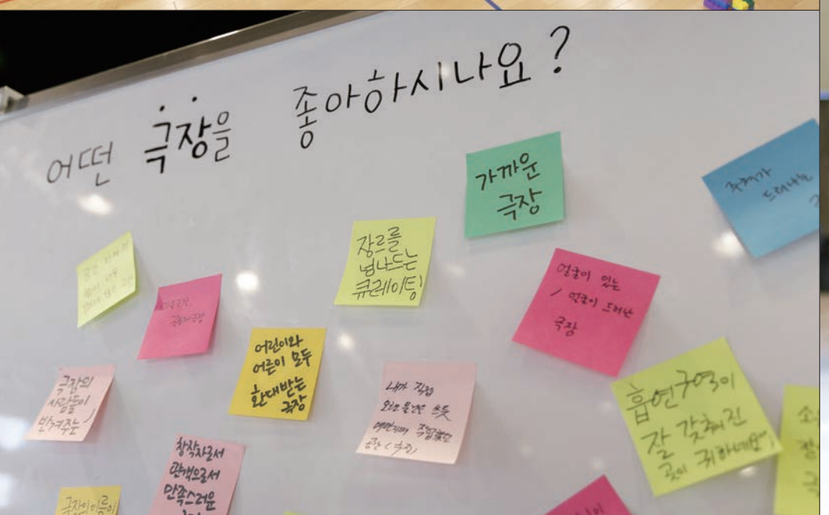
그렇게 이어온 6년간의 성과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매년 정기 대관을 통해 작품 총 88편이 세상에 나와 관객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운영단 기획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연극 관련 이론을 다룬 논문을 다시 연극으로 만드는 〈퍼포논문〉,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 또는 개인이 삼일로창고극장 전 공간에서 24시간 동안 15분 내외의 작품을 창작·발표하는 〈24시간연극제〉,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풀어낸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창고개방〉은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고, 예술가가 예술가를 만나 삼일로창고극장의 현재와 미래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대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예술단체 또는 개인이 삼일로창고극장에서 24시간 동안 15분 내외의 작품을 창작·발표하는 〈24시간연극제〉

## 극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올해 11월 24일 열린 행사 〈창고개방: 태도의 극장사〉는 삼일로창고극장이 2018년 재개관 이래 현장의 예술가들에게, 또한 극장 스스로 서울시에 가지고자 한 태도와 실제로 비친 태도를 돌아보며 스스로 평가해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극장의 운영을 맡게 될 또 다른 주체에게 삼일로창고극장이 가지고자 했던 '태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주기를 바라며 서울문화재단과 공동운영단이 함께해온 6년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창고개방〉 행사는 11월 24일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 형식의 포럼으로 운영했는데, 삼일로창고극장과 관계된 많은 사람의 짧은 글을 받아 24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12월에는 삼일로창고극장 누리집(samilro.com)에 결과자료집을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 〈창고개방〉 기획자이자 공동운영단으로 활동한 허영균 프로듀서(공연예술출판사 1도씨 대표)의 기획안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칩니다.




↓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 삼일로창고극장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 〈창고포럼〉

그동안 삼일로창고극장은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문턱이 낮은 극장, 다양성과 실험이 포용되는 극장, 안전하게 반기를 들 권리를 지지하는 극장, 불온한 상상마저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극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삼일로창고극장이 말해온 '젊음'이란 결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고, '낮은'은 수준과 기준이 아니었으며, '포용'은 우리만의 취향이 기준이 아니었다. '불온함'이야 말로 더욱 살뜰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임을 생각했고, 이런 생각이 극장을 이루는 태도의 바탕이 되었다.

"우리들의 뜻과 태도는 잘 전달되었을까?"
"우리가 했다는 노력과 취했던 태도는 읽혔나? 인정되었나?"

2023년 〈창고개방〉은 삼일로창고극장의 태도를 주제로 마지막 포럼을 진행한다. 삼일로창고극장이 주제로 건넸던 이슈들을 다시 꺼내 그것을 이루는 태도에 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한다. 재개관 이래 삼일로창고극장과 공동운영단이 함께 일궈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돌아보며 우리를 이뤘던, 우리가 지향했던, 우리가 지속했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다. 태도가 '취하는 것'이라면, 삼일로창고극장의 우리는 무엇을 취했고, 취하려 했는지가 함께 논의될 것이다.

삼일로창고극장을 이어 가게 될 (누가 될지 모르는) 민간 위탁 업체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은 대상도, 형식도 아닌 '태도'일 것이므로. 우리가 취해온 태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계승해주십사 이제부터 우리는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매일을 가르는 구본창의 항해
**페이퍼로그**
시설안전2팀 이진
**인사이드**
〈신파의 세기〉에 관한 대화
2024 원로예술지원
예술플러스창업
**예술단체 아카이브**
고스트그룹
음악그룹 더튠
**트렌드**
레지테아터, 현시대 극장과 오페라의 경향
유튜브를 보고선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
**해외는 지금**
육아와 공연을 병행할 수 있을까?

박이현 노블레스·아트나우 에디터 | 사진 강민정



# 매일을 가르는 구본창의 항해

어쩌면 일상에서 흔하디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섬세한 감수성으로 다시 그려내는 사진가 구본창. 그의 50년 사진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12월 14일부터 이듬해 3월 1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회고전 《구본창의 항해》가 열립니다. 청소년기에 촬영한 〈자화상〉1968을 포함하면, 50여 년 사진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인데요. 작가에게 '회고전'이란 단어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회고전'이라 쓰고, '행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50여 년 작업 궤적을 하나의 전시에 담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곧 전시실에서 보시겠지만, 16편의 개인전을 동시에 개최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담감이 상당했죠. 그런데도 저의 50년 아카이브를 정리할 수 있었던 건 《구본창의 항해》를 위해 애써준 분들 덕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일기를 다시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더군요. 살면서 큰 보람을 느낀 일로 기억될 거예요.

인터뷰 마지막에 드려야 할 짓궂은 질문을 꺼내볼게요. 타임라인을 돌아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가였나요? '구본창은 ○○○한 작가다'처럼요! 누군가 대신 답해줘야 하는 질문 아닌가요?(웃음) 꼭 말해야 한다면, 남의 눈치를 안 본 작가? 그동안 여러 전시와 인터뷰를 통해 작업이 소개됐는데, 미사여구로 저를 꾸민 적은 없어요. 그저 외골수처럼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담백하게 공개했을 뿐. 그런 구본창이란 사람을 이해해준 좋은 인연을 만났기에 작가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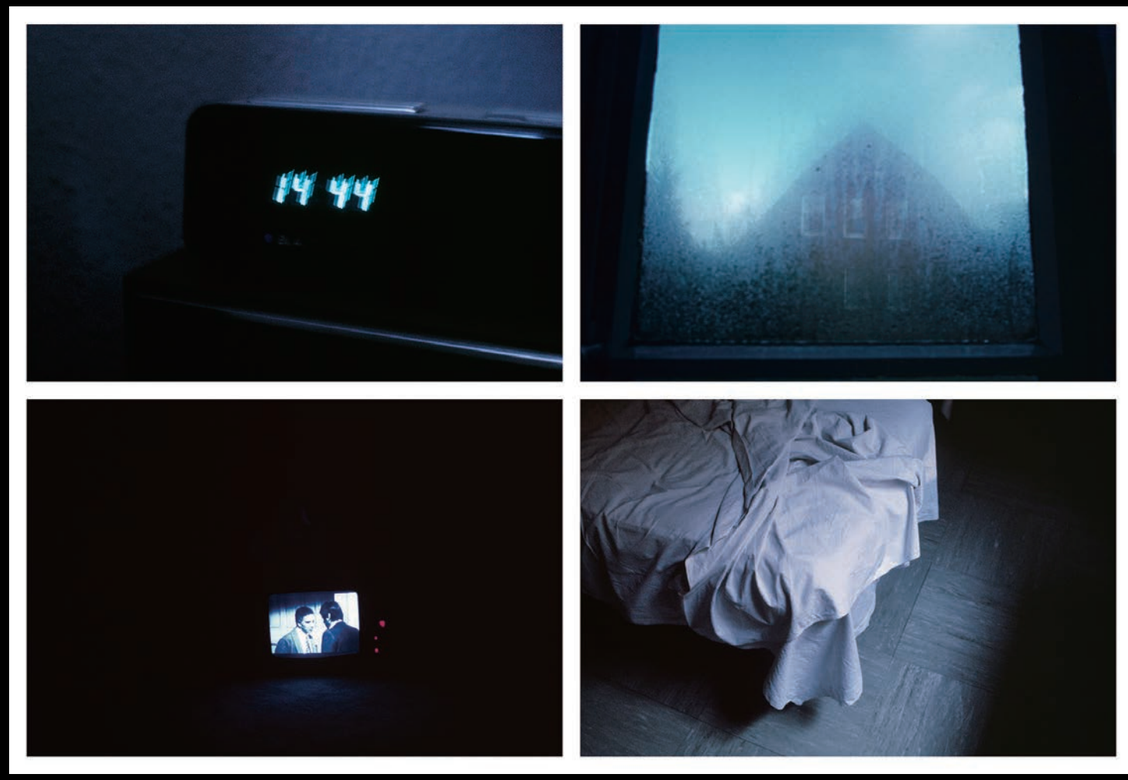
맞아요. 과거 인터뷰를 다시 읽어보니 굉장히 진솔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질문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답변이 달라지지 않아 놀랐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다가 1980~1990년대에 기록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디지털로 변환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인데,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다시 한번 봤어요. 다행히 엉뚱한 말은 안 했더군요. 인터뷰 시점이 달랐는데도 보태거나 뺀 말 역시 없었고요. 더욱이 얼마 전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비슷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웃음)

전시 제목이 '항해'입니다. 추측건대 대학생 시절 수평선을 바라보는 자신의 뒷모습에

〈자화상〉, 1968

언젠가 저 바다 너머로 향할 것이라는 다짐을 담은 것이 항해의 출발선인 듯해요. 선생님의 50년 여정은 어땠나요?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1985년, 급격하게 변한 서울 풍경이 낯설어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외에는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았어요. 만약, '신대륙을 발견하고야 말겠다', '특색 있는 예술가가 되겠다' 같은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면 언젠가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자고 다짐했기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인연이 훌륭한 나침반 역할도 왕왕 해줬고요.

앞서 언급한 〈자화상〉 작업에 관해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대로 주어진 조건에 순응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던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미대가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한 일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모범생이었으나 대학 생활은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수평선을 바라보며




〈One Minute Monologue 001〉, 1984

〈Moon Rising III (BM 04 BW)〉, 2006, Photographed at The British Museum, London, United Kingdom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 나아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싹텄습니다. 본디 저는 모험심과는 거리가 먼 소극적인 사람인데, '이거다' 하고 결론 내린 일에는 욕심을 부렸어요. 어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었네요.(웃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속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라는 구절을 좋아하신다고요. 냉철한 경영학도가 따스한 감성의 사진가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일흔 나이에 헤르만 헤세를 운운하는 게 감성적이지만,(웃음) 어렸을 때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요. 게다가 내성적이어서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작은 물건들과 대화를 자주 나눴어요. 자연스레 애지중지하고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죠. 미술에 끌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성향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했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들어간 회사에선 온종일 서류만 만졌어요. 결국, 탈출해야겠다는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남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이거다 싶은 일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사진가 구본창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그렇게 흘러온 시간이 독일에서 나비효과를 일으켰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애정의 눈길을 주고, 온기를 나누려 했던 일이 사진에 녹아들었나 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칭찬할 정도로. 이후 자신감이 붙으면서 사진 찍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1984년엔 무작정 안드레 겔프케André Gelpke에게 연락하셨다고요. 함부르크에서 공부할 때 원인 모를 갈증이 있었습니다. 해답을 구하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그의 사진집을 봤어요. 단번에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왔죠. 전화번호부에서 안드레 겔프케의 번호를 찾아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고, 한달음에 그가 있는 뒤셀도르프에 갔습니다. 그날 안드레 겔프케는 제 사진을 두고 "한국 학생인데, 네 냄새가 안 난다. 유럽 작가가 찍은 사진처럼 보인다"는 말을 해줬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나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처럼 스트레이트 하면서 조형적 아름다움이 묻어난 사진이 최고라 믿었는데…. 그를 만난 이후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고, 함부르크에 돌아와 졸업 작품을 전면 수정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작업이 〈1분간의 독백One Minute Monologue〉이에요.

다시 전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구본창의 항해》는 '모험의 여정'1968-2004, '하나의 세계'1993-2007, '영혼의 사원'1998-2023이라는 세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각 섹션의 주안점은 무엇일까요? '모험의 여정'은 귀국 후 혼란스러웠던 제 감정을 그려낸 작품들로 구성돼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촬영한 스냅 사진도 있지만, 한계에 부딪혀 다양한 실험을 했던 작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화지에 흠집을 낸다거나, 인화지를 꿰맨다거나 등등…. 〈탈의기〉1988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해요. 대상을 응시하는 태도와 사진 형식이 달라지는 변곡점 같은 작업이거든요. 한편, '하나의 세계'는 자연의 순리를 주제로 한 사진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은 임종 직전의 아버지 모습을 그려낸 〈숨〉1995이에요. 마지막으로 '영혼의 사원'에선 유물처럼 역사를 간직한 사물을 대상으로 한 사진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는 본디 우리의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할 수 없는 것들을 사진으로나마 제자리로 가져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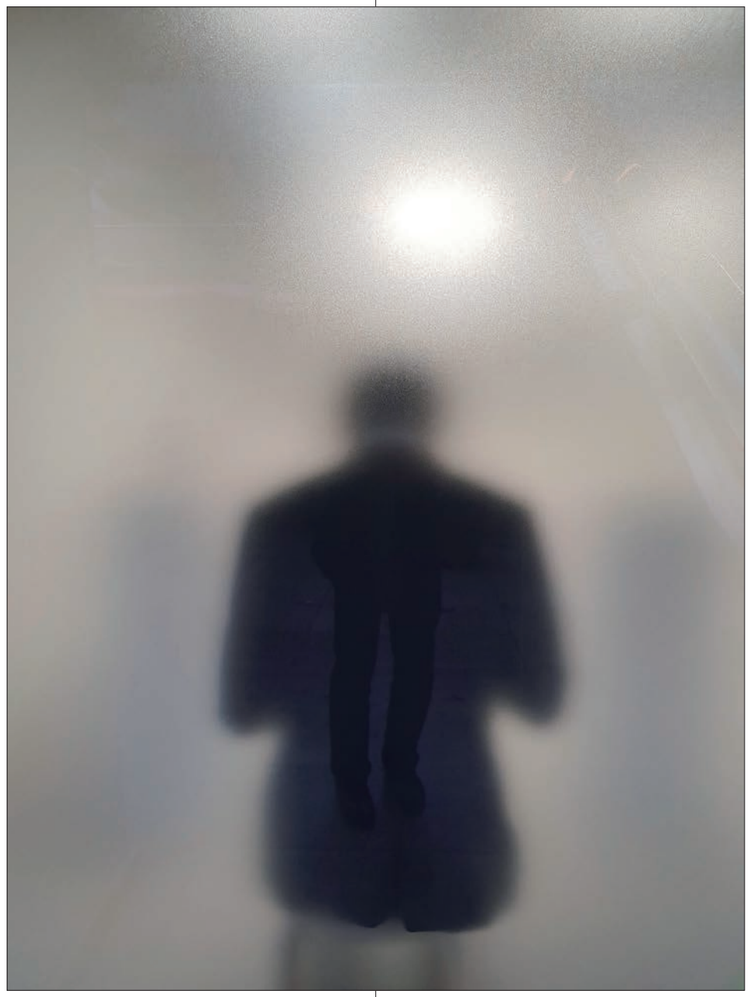
전시장 속 관객들의 놀란 표정이 벌써 그려지는데요. 흔히 저더러 '백자와 비누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그중 〈백자〉2004- 작업은 우리가 잘 몰랐던 백자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작업은 다양한 실험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빈티지 프린트를 다시 끄집어낸 것도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일환이에요. 인화지 색이 바래고, 일부가 찢어졌지만, 모두 사진의 매력 아닐까요?

구본창을 이야기할 때 늘 따라오는 전시가 《사진, 새 시좌》1988입니다. 선생님께서 기획한 전시는 사진이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전시를 기점으로 사진에 개념, 감정, 사회적 담론 및 쟁점 등이 녹아들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선생님께선 '사진'과 '미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1996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기획한 국내 사진 단체전 《사진-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때 사진가들이 감동했어요. 1970~1980년대 사진가는 예술가와 그 작품을 찍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드디어 국립현대미술관 문턱을 넘어섰으니 벅차오를 수밖에. 《사진, 새 시좌》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1988년 전시 이후 사진 전공자들의 졸전 스타일이 확 바뀌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사진과 미술을 나누지 않고 예술가의 한 사람이라고 저를 정의했습니다. 독일에선 수업 시간에 다양한 매체를 다뤘기에 사진과 미술이 달리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카메라를 이용하고, 사진을 전공한 작가들이 다른 매체를 선보이는 경향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작업은 현실과 현실 저 너머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탈〉과 〈비누〉 등 시리즈는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현실(찰나)을 날카롭게 절단하는 사진이라는 매체를 시공간을 넘나드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선생님만의 비결이 있나요?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사진 기술이 밑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1998, 2002-09 작업을 아웃 포커스(심도가 얕아 촬영 대상 이외에는 초점이 맞지 않음) 대신 팬 포커스(화면 모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찍었다면, 영혼을 보는 듯 멀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진 외적으로는 제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다보니, 작품들도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처럼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합리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시절 경험이 묻어났을 거예요.

숨겨진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견하시나요? 이를 포착하는 건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이 보고, 많이 찍고, 많이 상상하면서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50% 이상은 타고난다고 봐요. 혹은 어렸을 때 개발하거나. 감성적인 기질을 뒤늦게 공부로 키우는 건 힘듭니다. 처음부터 DNA에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것들로 대부분 결정되는 듯해요. 여기에 성인이 돼 얻은 경험치와 지식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고요. 글을 쓰는 사람도, 작곡하는 사람도 예전의 기억을 되씹어 창조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다양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진은 0과 1의 세상에 더 많이 머무르고, 사진을 보는 방식도 스마트폰 액정과 두 손가락(핀치 줌pinch zoom)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고 인화지에 프린트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작가로서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저는 이미지를 인화지에 안착해 전시하는 것이 작업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지털 공간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에겐 인화지가 필수는 아닐 테지요. 다만,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 관점에선 굳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하는 〈Incognito〉 시리즈 일부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Incognito 71〉, 2019

찰나를 포착하는 일이 사진가의 숙명인데, 그 순간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야죠. 그러나 스마트폰에 사진을 띄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작가라면 공간이든, 아니면 최소한 모니터로든 사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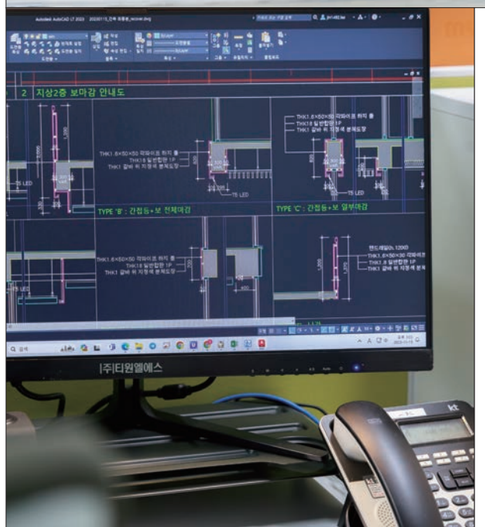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화를 정리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가 초년생부터 오늘날까지 선생님께서 믿는, 변하지 않는 '사진가의 진심'이란? 호기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대상을 살펴보는 것.

시설안전2팀 이진

# 배려와 취향이 깃든 세계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2018년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해 시설안전2팀에서 어느덧 6년 차를 보내고 있는 이진입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건설회사에서 6년 반 동안 근무했어요. 서울·부산·경기 등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해외까지, 오피스 빌딩과 기숙사·호텔·공장 등 다양한 건설 현장을 누볐는데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누적되며 퇴사를 결심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기간을 무조건 맞추기 위해 잦은 현장 이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내가 사는 공간을 바꿔야만 했죠.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고 오히려 모험을 두려워하는 편이라, 당시 어떤 준비나 대비 없이 곧바로 퇴사를 실행에 옮긴 것은 아마 제 인생에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모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쉽게 퇴사를 결정하진 못할 것 같아요.(웃음) 서울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업무는 지금껏 제가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 입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건설사에서의 일이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재단에서의 일은 계획하고 구상해 명확하게 실행되도록 관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전 직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실행 전 단계죠. 비록 힘들었지만 이전의 경험이 재단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얼마 전 서울문화재단 본관 건물이 새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환경 개선 공사를 맡아 진행하셨죠. 재단 본관 건물은 1989년 완공된 성북수도사업소를 2006년 리모델링해 노출콘크리트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노출콘크리트 공법은 콘크리트 자체로 외벽을 마감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 더 쉽고 간편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콘크리트 면이 마감 면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정교하게 시공해야 하는 난도 높은 마감 방법이에요. 게다가 재단 본관 건물은 애초에 노출콘크리트 형태로 계획해 시공한 건물이 아니다보니,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누수나 단열 같은 문제가 하나씩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직원의 의견이 모여 이번 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은 외벽 마감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백색 시멘트로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접착제와 단열재, 베이스 코트, 유리섬유 메시, 마감재, 실리콘 페인트까지 총 여섯 겹의 레이어를 가진 독일 STO 외단열 시스템이 적용됐어요. 훼손이 심한 콘크리트 벽면은 보호하고, 단열 성능은 강화하면서 깔끔하게 마감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공사에서 가장 많은 공과 비용을 들인 만큼 외벽의 질감과 색상을 선택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일한 마감을 택한 건축물 여러 곳을 답사하고, 샘플 시공까지 해 본 후에 내부 투표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투자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보람을 느끼고요. 이 기회에 시설안전팀원 전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웃음) 그뿐만 아니라 1층 로비와 2층 공용 공간 또한 이번 개선 공사에서 많이 변화한 부분인데요. 1층 로비 안내데스크 뒤쪽 상부를 보면 기존의 거친 벽면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옛것과 지금의 것을 대비해 극적인 효과를 주고자 한 대표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본관 공사는 외관도 변화했지만,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재단에 입사해 처음 맡은 업무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일이었다고요. 1976년부터 2011년까지 구의취수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2015년 재단이 부분 리모델링해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취수장 시절 직원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을 레지던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요. 이때 예상과 달리 한 차례 공사가 중단돼 해를 넘기고서야 준공된 것이 생각나네요. 건물 마감 벽체를 철거하고보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위가 상당해 추가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동절기라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듬해 따뜻한 봄이 되어서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문화예술계 전반에 배리어프리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대부분 준공 시기가 오래 지났거나, 건설된 용도가 재단이 원하는 사항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에 사실 지금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공간도 많습니다. 배리어프리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재단이 운영하는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대규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고요. 당시 저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리어프리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시설물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깃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규나 서울시 가이드라인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야 하기에 수많은 규정에 나를 엄격하게 맞춰야 하는 업무일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올해 거주지를 이사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게다가 얼마 전 인사 발령으로 본관이 아닌 대학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 됐네요. 다시 이사하기는 불가능하니, 많은 이들이 몰리는 러시아워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골몰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최근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엿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특히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을 좋아하는데요. 그 공간은 건축가의 취향이 드러나는 건축물 혹은 거주하는 집이나 상점이 될 수도 있겠죠. 소셜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남다른 취향과 안목으로 가득 찬 장소라면, 지도에 저장해두고 몇 번이고 방문해요. 충분히 그곳에 머물며 때로는 그 취향과 안목을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대구 군위군에 있는 사유원에 들렀는데, 정말 좋았어요.

# 우리가 지금 신파를 하는 이유 〈신파의 세기〉에 관한 대화

대학로극장 쿼드는 올해 마지막 제작 공연으로 정진새 작·연출 〈신파의 세기〉를 무대에 올린다. 드라마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우리가 20세기에 두고 온 그것, '신파'를 꺼내 오늘날의 신파란 무엇인지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K-스러운 신파를 펼쳐낸다. 대학로극장 쿼드 5층 연습실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연출가 정진새, 드라마터그 양근애, 그리고 배우 김준우·전선우가 함께했다.

서로가 생각하는 신파의 이미지와 그에 관한 생각이 달랐을 텐데, 신파를 어떻게 정의하고 시작했나?

정진새 신작을 제안받은 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여서 연극 자체에 관한 질문과 각성이 있었다. 한국 연극이 가진 특징이자 맹점이 '신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신파성은 서사가 빈약하고 논리가 억지스러운데 감정 과잉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인상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주제화할 것인지를 주로 논의했다.

전선우 주제는 흥미로웠지만 광범위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 정서 차원에서 보면 트로트도 신파의 한 종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신파 아닐까.

양근애 신파에 대한 내 안의 모순이 있다. 신파 장면을 싫어하지만, 근대극 연구자로서는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를 짚어내게 돼서 흥미로운 거다. 〈신파의 세기〉는 한국 연극에 관한 질문을 신파로 통과한다는 의미, 양가감정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다.

김준우 지금의 10대, 20대가 신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다. 나에게 신파는 감정 과잉이고 흔한 방식이라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신파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

정진새 워크숍 중 울음참기대회가 있었다. 젊은 청년이 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할 때 시민들이 막아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의 가족을 만나는 장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오랜만에 마주하는 영상 등을 보면서 울지 않는 것이었는데, 준우 배우가 1등을 했다. 참관자였던 안무 선생님이 폭풍 오열하시던 게 웃기기도, 공감되기도 했다. 나이, 세대, 젠더처럼 개인의 정체성과 입장에 따라 무너지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있었나?

정진새 연출가로서 신파 콘텐츠를 보니 그 연출이 의외로 정교하더라. 중심이 되는 배우의 연기 주위로 카메라의 시점, 음악, 자막, 내레이션 등이 포진해 있다. 이런 빌드업에다 감정의 출구까지도 잘 만들어놓았더라. 장면을 끌어내기 위한 신파 협업이 있고, 한국 창작자들이 신파 만들기에 관해 설정한 기본값이 높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슬픔이라는 취약한 감정을 제작진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양근애 〈신파의 세기〉 안에도 신파 장면이 꽤 나오는데, 그 장면만 떼놓고 보면 우스꽝스럽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되고 일정 부분 필요한 정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파를 무턱대고 낡고 과잉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순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잘 포착하는 게 중요했다.

전선우 양가감정을 느꼈다. 나를 어떤 감정에 강압적으로 넣으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오히려 확 멀어지게 하는데, 작품에 그런 게 없으면 또 너무 건조하고 재미도 없다. 감정을 시원하게 표현했을 때 나 역시도 그 안으로 확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 있다. 신파라고 불리는 것들을 완전히 거부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연기에 있어서 정교한 조절이 필요했다.

가상의 국가 치르치르스탄에 투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양근애 우리 사회는 예술과 문화를 정치·사회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위해 필요하고도 매력적인 설정이 신생 자립국이었다. 공간을 한국으로 설정하면 어떤 시대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상 국가를 설정해 한국을 벗어남으로써 자유가 생겼지만, 동시에 마리 클리셰 공주가 지키려는 것에서 계속 기시감이 느껴졌다.

정진새 '클리셰'라는 단어를 통해 정권 차원에서 만들려 했던 국민 문화의 아주 많은 부분이 이해됐다. 이를테면 박정희 시대에 이순신 동상을 왜 광화문광장에 세우려고 했는지, 전두환 시대에 3S가 왜 필요했는지. 지도자를 클리셰 관점에서 보니까 분열된 국민을 모을 수 있는 건 그런 문화인 거다. 이게 신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K-팝도 그렇게 보이더라. 국가에 의해 전유되는 예술은 위험하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를 당연히 비판하고 그 시대를 끝내야 한다.

가상으로 설정한 공간이지만, 중앙아시아에 관한 높은 이해가 필요했을 것 같다.

정진새 중앙아시아를 타자화한 부분 때문에 대대적인 대본 수정이 있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스탄' 국가들을 일본 제국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로 바라본 면이 있었다. 우리나라 신파극은 1910년대에 시작됐다. 신파의 기원이나 신파성 자체가 나라 잃은 민족의 현실에서 비롯했고, 그것이 세계 보편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라를 잃은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일원으로 오히려 강대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뜨거움의 방식으로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면 무례에 가까운 오해를 낳게 된다. 제3세계 식민지도 저마다 국민이 단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며 지내왔다. 삼바가 그렇다. 라틴 원주민의 전통 음악과 남미를 지배한 유럽 귀족의 클래식 음악,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사람들의 리듬감이 잘 조합된 게 브라질의 삼바다. 신파는 의견이 분분한 것에 비해, 삼바는 국가가 장난치지도 않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즐기는 문화다. 이 작업을 통해 정진새라는 인간, 작가가 가진 문화의 틀이 아주 좁다는 걸 알게 됐다.

양근애 중앙아시아 워크숍을 통해 민족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게 됐다. 우리는 없는 갈등도 촘촘히 만들어내는데, 중앙아시아는 단위가 크다.

배우 전선우·김준우

우리에게 '옛것'이 30년이라면 거기는 100년 단위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 작품의 출발은 한국 연극이었는데, 문화 전반의 이야기로 확장된 셈이다.

'미스터케이', '마리 클리셰', '디아스포라' 등의 작명에서도 작품이 가진 자조적인 면이 엿보인다.

정진새 준우 배우는 똑똑해 보이지만 찌질한 면도 있고, 찌질하면서도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독특함이 있다. 그런 게 시대가 발견하지 못한 좋은 얼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대표성으로 '미스터케이', '김민식'이라는 가장 평범한 이름을 줬다. 그런데 준우 배우가 연습 중에 '백성 민에 먹을 식'이라고 스스로 설정하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가는구나 싶었다.(웃음) '클리셰'라는 단어에는 힘이 있다. 뭔가를 만들다가도 '그거 클리셰야'라고 하면 다 엎고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이름을 전유해보고 싶었다. 선우 배우는 기품은 있는데 나사가 빠진 듯한 인물을 잘 표현해서 '마리 클리셰'를 연기하게 됐다. 마리 클리셰나 김민식 모두 극단문이 가진 일종의 스타일이다.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허세고 뭔가를 비판하기 위한 상징성만 있는 이름. 같이 작업한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그런 이름을 잘 갖고 노는 편이다.

김준우 신파라는 주제를 떠나서 연출님의 작품은 전형성을 벗어나 있어 그런 인물을 어떻게 더 개성 있게 만들고 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다.

마리 클리셰 공주는 K-신파를 치르치르스탄에 이식해 왕위를 계승하려 한다. "신파극이 아닌 K-신파"라는 대사가 있는데, 여기서 'K'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진새 'K'는 정부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붙여지고, 창작자들은 붙여진 K에 대한 일종의 역반응 비판의 용도로 사용한다. 2020년에 공연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탐구 영역〉에 "K-공교육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대사가 있었다. 본질적인 문제를 K-공교육에서는 내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어떤 표현을 만들다가 막혔을 때 K를 붙이니까 오히려 문제의 핵심에 다가간다는 걸 발견한 거다. 본질은 빼놓고 허울 좋은 것을 'K'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시민으로서는 '국가가



너를 보고 있어, 국위선양이 기본값이 되어야 해'라고 옥죄는 말 같다. 고유성과 개별성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다.

양근애 한국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마치 한국적인 문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신파만큼이나 비판이 필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게 실재가 없는데 'K'라는 말로 규정하는 게 아닐까. '한류'가 'K'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무언가처럼 이야기된다. 긍정적 의미라면 경제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포장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자본 없이 예술을 할 수 없으니 정말로 'K'를 하려면 국가에서 한국 문화에 투자하고 예술인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다.

김준우 작품 준비하면서 K-연극을 고민하게 됐다. 동양극장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보게 됐는데, 1930년대가 지금보다 배우들의 월급도 더 많고 시스템도 더 좋더라. 미투 이후 한국 연극이 변했다고 하지만, 허울만 좋아진 것이지 내실은 못 따라가는 느낌이다. 그게 지금의 K-연극이 아닐까 싶다.

지금의 우리를 대입하는 다른 시공간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정진새 신파에 담긴 맥락을 알고 즐기는 게 중요하다. 역사·맥락적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드는 노동자의 생활, 신파를 만들기 위한 훈련 같은 것들이다. 관객들이 지금 즐기는 신파에 이런 면이 있으니, 앞으로 잘 새기고 21세기나 22세기에는 신파의 비중을 줄이거나 적절히 쓰는 데 동참하면 어떨까요, 정도의 제안일 거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파의 가능성이다. 신파는 약한 여성을 괴롭히는 이야기고, 막장은 강한 여성을 괴롭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약한 존재를 돌보는 쪽으로의 신파, 이를테면 퀴어 신파, 동물 신파, 비인간 신파처럼 신파의 수혜를 전복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예술가·관객에게 하고 싶다.

전선우 일단은 재밌게 봐주면 좋겠다. 재미가 있어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실 테니까. 관객들도 신파의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의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준우 신파를 잘 즐기는 분들이 계실

연출가 정진새·드라마터그 양근애

거다. 신파가 왜 나빠? 왜 즐기면 안 돼? 그 이면에 무조건 즐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파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양근애 지금의 관객들은 모든 걸 키치적으로 소비하니 연극을 즐기는 방식도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지금 신파가 오히려 새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의 것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신파를 하는 건 그 이유에서다.

**정진새 작·연출 〈신파의 세기〉**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월 공연 없음)
대학로극장 쿼드

정지영·구슬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1팀·예술지원2팀



# 문턱은 낮추고 고충은 헤아리며, 2024 원로예술지원

2024년 서울문화재단 원로예술지원 공모 접수가 12월 4일 시작된다. 2년 차에 접어드는 원로예술지원사업은 원로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 자격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은 기존 정액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 예술창작활동지원에서 포괄하지 못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문화재단이 2023년 예술지원사업에 신설한 '원로예술지원'은 공연·전시·발간·낭독회·워크숍 등 서울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발표 형태를 지원하며, 발표 규모는 활동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2024년 원로예술지원 공모는 12월 4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해 온라인 지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2024년 서울에서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25년 내외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예술인은 활동을 마친 후 간소화된 정산 절차에 따라 개별 활동을 보고하면 된다.

원로예술지원사업은 공모 접수 기간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담 창구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층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 마련되며, 12월 4일부터 22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원로예술인은 상담 창구에서 사업 내용 전반과 온라인 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중단했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맞춤형 예술 창작 활동을 기대하는 원로예술인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올해 서울문화재단 원로예술지원사업은 지난해 대비 선정자별 지원 금액을 높였다. 이로써 시상금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운영되는데, 재단 내 여타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통한 결과 보고와 정산 결과 제출이 필요하다. 다만, 대상 예술인의 연령을 고려해 그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추후 진행될 선정자 간담회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만큼 서울문화재단은 2024년에도 원로예술인과 소통하며 예술생태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의 소외를 줄이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강수영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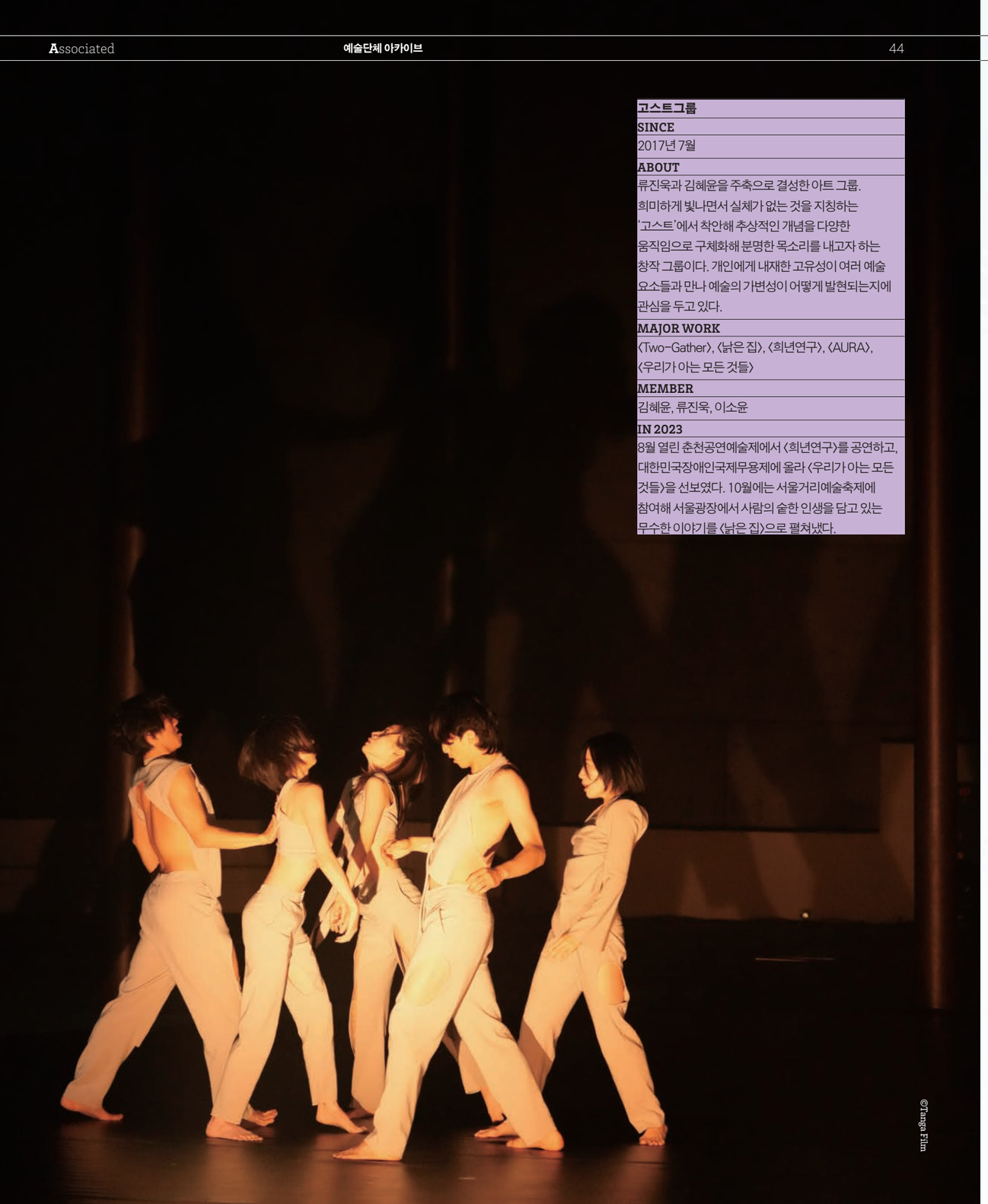
# 예술 아이디어에 가능성을 더하다, 예술플러스창업

청년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창업에 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과 지식산업 분야에 비해 예술 창업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이 부재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문화예술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아 진입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술인 혹은 예술 전공자는 아트 마케팅과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청년예술인이 예술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과 교육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예술플러스창업'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출발한 신규 사업으로, 예술 창작자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법을 익히고 예술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초기 모델을 설계해보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예술플러스창업은 크게 기초에서 심화로 이어지는 2단계 교육 프로그램과 발표 대회로 나뉜다. 1단계 베이직클리닉은 예술 창업의 본질을 학습하면서 아이디에이션ideation, 즉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10주 과정의 기초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년예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별도의 지원 절차 없이 예술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 아이디어 발표 평가에 지원한 30명을 대상으로 심사해 15명을 선발했다.

2단계 비즈니스클리닉에서는 선정 예술인이 창업 아이디어를 본격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활동비 300만 원이 지원되며, 동시에 사업을 검증·보완해보는 심화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선정 예술인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사업계획서에 구상한 창업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해볼 수 있도록 시제품을 제작해보는 개별 미션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 법률과 브랜딩, 창업 지원 신청서 작성 등 공동 교육이 주 1회 진행됐다. 이 밖에도 각 사업 분야의 전문가 혹은 선배 창업가와의 개별 자문이 이뤄졌고, 마지막 단계인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사업계획서 기반 비즈니스 모델 점검과 피칭 훈련 멘토링이 2단계 과정 내 운영됐다.

그리고 청년 예비 창업가 가운데 최종 5명(팀)을 선발하는 결선 PT 행사이자 시상식인 '서울문화재단 제1기 청년예술창업 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머무르던 아이템을 제품과 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했다. 지난 11월 17일 청년예술청에서 진행된 청년예술창업 페스타에서는 아티스트에게 받는 개인화된 편지 서비스, 발달장애인 전문 음악교육 프로그램, 나만의 취향과 추억이 담긴 인형 제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소개됐다. 심사위원단은 사업 계획의 독창성, 시장성 및 수익성, 창업 의지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우승 5팀을 선정했다. 우승한 이들에게는 시상금 각 5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추후 실제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플랫폼과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Tanga Film

**고스트그룹**

**SINCE**

2017년 7월

**ABOUT**

류진욱과 김혜윤을 주축으로 결성한 아트 그룹. 희미하게 빛나면서 실체가 없는 것을 지칭하는 '고스트'에서 착안해 추상적인 개념을 다양한 움직임으로 구체화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창작 그룹이다. 개인에게 내재한 고유성이 여러 예술 요소들과 만나 예술의 가변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MAJOR WORK**

〈Two-Gather〉, 〈낡은 집〉, 〈희년연구〉, 〈AURA〉,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

**MEMBER**

김혜윤, 류진욱, 이소윤

**IN 2023**

8월 열린 춘천공연예술제에서 〈희년연구〉를 공연하고,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에 올라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을 선보였다. 10월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해 서울광장에서 사람의 숱한 인생을 담고 있는 무수한 이야기를 〈낡은 집〉으로 펼쳐냈다.

**음악그룹 더툰**

**SINCE**

2013년 1월

**ABOUT**

샤머니즘, 노동요, 전통 장단 등 한국 전통음악이 품고 있는 다양한 모티프에 현대적 이미지와 감수성을 더한 음악을 추구하는 국악 밴드. 특정 장르에 국한하기보다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보컬과 타악기·건반·피리·태평소를 주요 구성으로 강렬한 에너지와 이미지가 느껴지는 개성 넘치는 음악을 선사한다.

**MAJOR WORK**

정규 2집 『월담』

**MEMBER**

이성순, 고현경, 타무라 료, 오영진, 남정훈

**IN 2023**

여러 장르의 아티스트와 다양한 협업을 시도한 한 해였다. 12월에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기획한 송년 콘서트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한 마을노래 만들기 음악 워크숍 〈오! 마을은 살아있네〉의 결과로 음반이 출시될 예정이며, 함께한 주민들과 하우스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 레지테아터, 현시대 극장과 오페라의 경향

#1.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여주인공은 일본의 게이샤가 아니라 서기 2576년 '파필리오' 행성의 공주다. 남주인공도 미국의 해군 장교가 아니라 '엠포리오' 행성이 파견한 사령관이다.(연출 정구호,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3막 끝부분에서 투란도트 공주가 칼라프 왕자의 손을 잡고 사랑의 성취를 찬미하는 대신 자신에게 총을 쏜다.(연출 손진책,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종대극장)

← 전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 로열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 〈노르마〉 ©예술의전당

#3.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3천여 개의 십자가가 무대를 둘러싼다. 원작의 로마군 대신 20세기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등장하고, 여주인공의 집 TV에서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온다.(알렉스 오예Àlex Ollé 연출, 10월 26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23년 대한민국의 오페라 무대를 장식한 세 편의 작품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무대에 익숙한 오페라 팬들의 반응은 '새로운 감동을 경험했다'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로 엇갈렸다. 연출가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유럽과 미국의 오페라극장에서는 이처럼 오페라 원작의 고전적인 연출을 크게 바꾸는, 실험적이거나 전위적인 시도를 '레지테아터Regietheater'라고 부른다. 독일어로 '연출가 극장'이라는 뜻이다.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의 배경인 중세 스페인이 정부군과 게릴라의 교전이 벌어지는 남미로 바뀌고, 모차르트 〈돈 조반니〉 배경이 21세기의 라스베이거스로 바뀌기도 한다. LED 조명이나 무대 배경에 프로젝션과 같은 현대적 효과도 자주 사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소격효과疏隔效果, Verfremdung'(낯설게 하기)가 연극과 오페라에서 강조되면서 먼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무대에서 레지테아터가 붐을 이뤘다. 이런 경향을 앞장서 이끈 인물로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손자인 빌란트 바그너Wieland Wagner가 꼽힌다. 그는 바이로이트 축제극장Bayreuth Festspielhaus에서 1950~60년대 바그너 극의 전위적인 해석을 이끌었으며, 이는 '극의 구조주의적이고 심층심리학적인 면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레지테아터에 대한 관용도 또는 수용성은 유럽과 미국이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로 북미에서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레지테아터가 환영을 받는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오페라계는 전통적인 무대가



유럽보다 많은 편이다. 그 이유에는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작용한다.

유럽의 경우 대대로 오페라를 즐겨온 고정 인구가 많은 편이며, 익숙한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많이 요구한다. 반면 북미에서는 대체로 오페라가 뮤지컬이나 다른 쇼 비즈니스 경험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해하기 쉬운 접근을 요구하는 경향이 크다.

지난 10월 19일 〈투란도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테너 이용훈은 흥미로운 일화를 전했다. "최근 독일 드레스덴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응용한 버전의 공연에 출연했죠. 줄다리기도 하고, 저는 동양인이어서인지 양궁도 하면서 난관을 뚫고 공주에게 도전하는 식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19세기 이전 작품을 창작 당시의 배경에서 이탈시키고 새로운 관점에서 만나게 하는 이런 '레지테아터'에는 자주 격렬한 찬성과 반대가 잇따른다. 미국 문화평론가 헤더 맥도널드Heather Mac Donald는 "오페라에 대한 유괴다. 무대 위에 남발하는 쓰레기 같은 섹스나 원작에서 분리된 설정은 깊은 질병의 증상이다. 가장 교활한 문제는 원작의 계몽주의적 가치에 대한 연출가들의 증오다"라고 질타한다. 얼마간 예술 외적인 이유로 레지테아터가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연출가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무대를 구성하는 비용이 커져 음악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레지테아터에 대한 찬성의 배경에도 여러 이유가 따른다. "예술가들은 많은 경우 당대의 시대적 문제를 작품에 녹였다. 예를 들어 〈나비부인〉에는 19세기 제국-주변부 사이 성노예 문제가 드러난다. 이를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로 현재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예다.

필자의 경우 레지테아터에 반감을 갖게 되는 때는 연출과 음악이 각각 다른 방향을 갈 경우다. 한 예로 푸치니 〈라 보엠〉에서 여주인공 미미를 먼저 로돌포를 유혹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한 경우가 있다. 원작 소설로 보면 미미는 2막을 지배하는 무제타와 마찬가지로 파리의 예술가와 패트런 사이를 옮겨 다니는 '코르티잔' 여성 중 하나이니 이런 해석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푸치니는 이 원작을 바탕으로 한없이 청순하고 순수한 여성 미미를 창조했다. 적극적인 미미는 이런 음악과 위배된다. 물론 그런 위배가 주는 반감까지 낯설게 하기, 소격효과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연출가의 이해 부족이 드러난 결과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계와 과대 포장이 일부 존재할지라도 레지테아터는 이 시대 극장과 오페라의 뚜렷한 경향이다. 작품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한편, 작품의 새로운 해석과 현재화 또한 필요하다. 두 가지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보완하며 명작의 가치를 키워나가야 한다. 원작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위해 오늘의 제작자와 연출가들은 한층 진지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손진책 연출 서울시오페라단 〈투란도트〉 ©세종문화회관

# 유튜브를 보고선 책을 읽었다는 사람들

나는 책을 사랑하는 아이였다. 초등학생 시절 봉고차에 책을 싣고 아파트 단지로 찾아오는 '이동도서관'을 애타게 기다렸다. 중·고교생 시절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고, 주말이면 지하철을 타고 대형 서점을 찾았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1판 1쇄 본'을 갖고 있다. 대학생 시절에도 학교 도서관을 애용했다. 책이 가득한 서가에서 풍기는 종이와 잉크 냄새를 들이마시면 현실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설렘으로 울렁거렸다.

명색이 신문기자인 나는 책을 읽지 않는 어른이 됐다. 문화부에선 매주 1권씩 서평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강제 독서 중이지만 사회부에서 근무할 때는 책과 사이가 멀었다. 업무와 관련한 사회과학이나 법률 서적을 조금,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추리소설을 조금 읽는 것이 전부였다. 완독한 책이 10권을 넘기지 못하는 해가 많았다. 그런 내가 유튜브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꼬박꼬박 본다.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혼밥을 즐기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부엌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본다.

나는 어쩌다 영상과 가까워지고 활자와 멀어졌을까. 최근 창간 기획으로 '요즘, 책 어떻게 읽으세요?'라는 기사를 준비하며 떠올린 상념이다. 이 기획 보도는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민 1,037명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출발했다. 10대의 19.6%, 20대의 13.5%는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까지 독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강신영,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2022) 당장 '아전인수도 적당히 해야지!'라는 반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른바 '유튜브 독서가'들을 인터뷰한 뒤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반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독서에 내포된 의미는 '지식을 익힌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지식을 익히는 매체가 파피루스에서 종이로 바뀌었듯이, 현대에는 활자에서 영상으로 바뀐 것이죠. 글에 적절한 소리나 이미지를 추가한 것인데 '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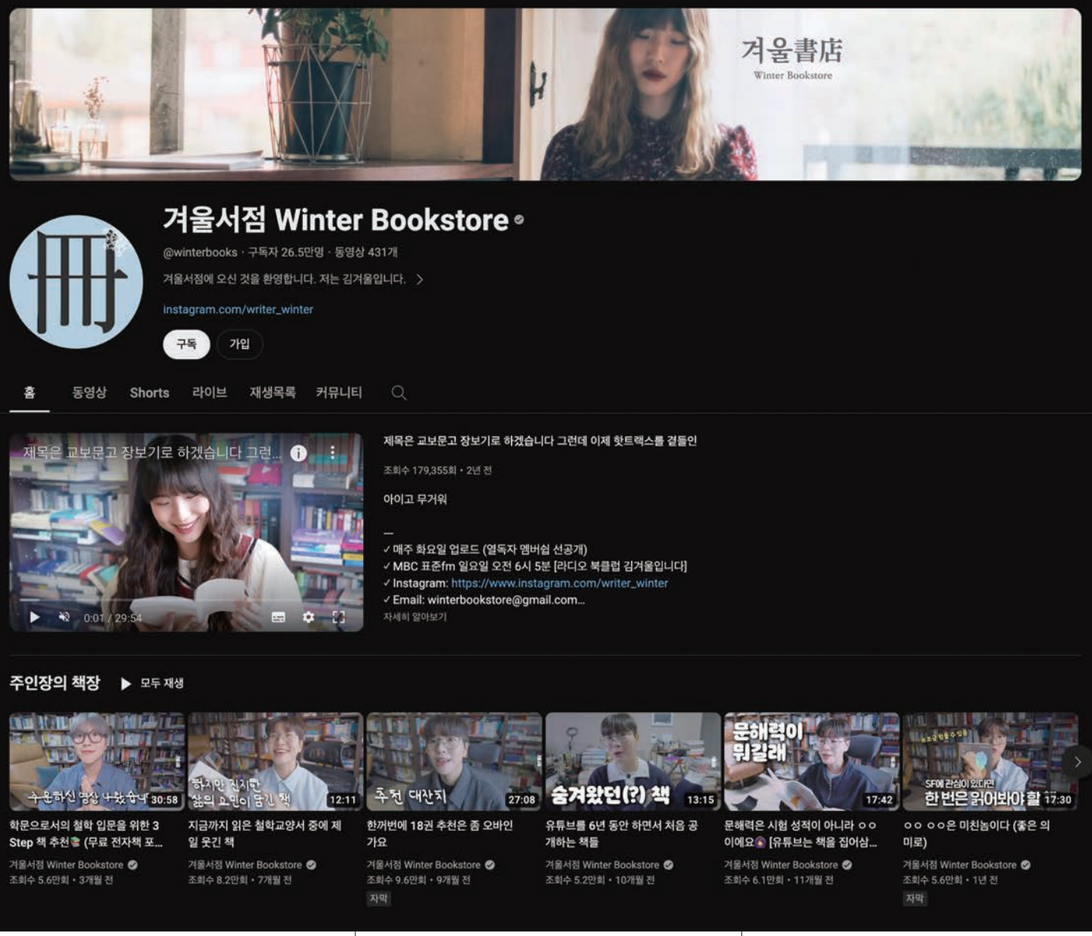
책의 모양은 변해왔다. '책冊'이라는 한자는 죽간이나 목간을 끈으로 엮은 모양을 나타낸 상형문자다. 책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고대의 책과 현대의 책은 모양이 다르다. 이제 책의 모양이 영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책을 가리키는 '도서圖書'라는 단어는 '그림 도圖'에 '글 서書'로 이뤄졌다. 특히 '서書'라는 한자는 '가로 왈曰'과 '붓 율聿'을 합쳐 '말을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다. 책이 본래 그림과 글로 이뤄진 것이며 말의 기록이라면, 유튜브도 책이 아닐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들은 이렇게도 말했다. "종이책을 찾아서 읽을 시간이면 유튜브로 짧은 독서를 한 번 더 할 수 있죠. 좋은 책을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1개를 얻을 시간에 10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 기술이 저에게 맞는 영상을 계속 띄워줘 취향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유튜브 독서가들은 자신의 삶을

↓ 유튜브에 '북튜브'를 검색하기만 해도 상당한 양의 오디오북을 즐길 수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문학의 경우 영상이 종이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하지만 비문학의 경우 '북튜브'와 '지식 채널'의 요약 정리된 지식이 가성비가 좋다고 봤다. 종이책은 유튜브에 비해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경우 얻는 지식의 질과 양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자신의 실존적 생활에 심오한 통찰보다는 폭넓은 교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로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들은 정작 책의 가치를 지지했다. 이들은 책의 가치를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이 돼보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경험이 책의 본질이라고 봤다.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의 가치를 옹호했다. 북튜브 '겨울서점'을 운영하는 김겨울은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타인이 돼보는 경험이에요. 책이 독자에게 능동성을 요구하지만, 유튜브는 독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죠. 유튜브에서 10분으로 요약한다면 특정 내용을 얻을 순 있지만 그 책을 읽는 일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들이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가성비적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 잘라내는 순간 독서의 풍부함을 못 누리게 돼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의 영역이라 기사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그래도 '경험의 풍부함'보다 '지식의 유용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에게 독서를 강권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책을 읽어야 더 나은 인생을 산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20년 전에는 책을 읽자는 공익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어쩌면 벌써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여러 번 와도 여전히 책과 책을 읽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어렸을 적 종이와 잉크 냄새에 느꼈던 설렘이 문득 그리워질 수도 있겠다.

↑ 북튜버 김겨울은 구독자 26.5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며, 2019년에는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이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다

↖ 몽펠리에 오페라 〈오르페오〉 ©Marc Ginot/Opéra Orchestre National Montpellier

↑ 지휘자 아담 피셰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빈 슈타츠오퍼 〈피가로의 결혼〉 리허설 현장. 베이스 페테르 켈너가 아이를 안은 채 노래하고 있다

# 육아와 공연을 병행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19일, 카네기홀 무대에는 아마도 역사상 최초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연을 앞둔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Khatia Buniatishvili가 리허설 중 무대 위에서 모유를 수유한 것이다. 이는 부니아티슈빌리가 인스타그램에 직접 수유 영상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해당 리사이틀은 원래 5월에 계획했다가 출산으로 연기된 것인데, 이번 일은 그사이 낳은 아이가 이번 투어에 동행했으며 그가 피아니스트이자 엄마라는 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부니아티슈빌리는 5월 말 출산했으며 8월 말부터 순회 연주(투어)를 하고 있다. 아이는 늘 그와 함께다.

10월 25일, 빈 슈타츠오퍼 〈피가로의 결혼〉 리허설 현장에도 아이가 등장했다. 베이비시터가 출근하지 않아 아이를 맡길 곳을 구하지 못한 베이스 페테르 켈너Peter Kellner가 아이를 리허설에 데리고 온 것이다. 켈너는 아이를 안고 노래했다. 이 현장은 지휘자 아담 피셰르Ádám Fischer가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유하며 알려졌다. 피셰르는 "바로 이 상황이 빈 슈타츠오퍼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서 지휘를 시작했을 땐, 여성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이제는 주역을 맡은 가수, 그것도 베이스가 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10월에 연달아 일어난 두 에피소드는 음악계가 성별의 장벽을 허문 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의 영역에도 유연해짐을 시사한다. 특히 페테르 켈너의 사례는 남성 음악가도 육아하며,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러한 변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악가들의 임신과 출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아티스트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더불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다. 그동안 여성 음악가들이 그늘에서 마주하던 고충이 점차 부모 공동의 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일로 확대되고 있다.

### 예술가의 임신과 출산, 육아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하는 주체다. 연주하는 몸에 변화가 생기면 활동에 변수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음악가를 고용한 단체는 그동안 장기적인 데다 악기별로도 변수가 있는 여성 음악가의 임신을 피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리니스트는 운이 좋으면 만삭까지 연주할 수 있지만, 첼리스트는 임신 7개월이 넘으면 연주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강한 숨을 불어넣어야 하는 오보에 연주자의 경우 임신 중 자궁 수축 등 무리가 오기도 한다. 성악가는 혈류 변화에 따라 성대가 변하는 등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임신 중후반쯤 발성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찾는다 해도, 배가 상당히 나온 후라 주인공이나 오페라의 위험한 연출을 소화하기에 무리일 수도 있다.

음악계에서는 이런 변수를 피하기 위한 출연 취소가 암묵적으로 이뤄져왔다. 문제는 음악가의 안전이나 신체적인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기보다, 단순히 출연진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반복해온 것이다. 영국 음악가조합Musicians' Union의 임신 차별 예방 캠페인이 이러한 관행을 잘 지적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자기 몸을 가장 잘 압니다.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지 말고, 그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대신 먼저 임신한 여성에게 물어보세요!



→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피아니스트 카티아 부니아티슈빌리 ©Jennifer Taylor

임신했다고 해서 여성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육아는 더욱 장기전이다. 남성 음악가·운영자가 악단·극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과거의 상황은 열악했다. 미네소타 오케스트라에서 40년 넘게 연주한 첼로 부수석 재닛 호바트Janet Horvath는 "아이가 호흡 곤란이 와 얼굴이 파랗게 변해갈 때, 악단의 남성 인사과장이 '남편이 아이 곁을 지키고 당신은 연주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며, "당시에는 아이가 아플 경우에 대한 제도도 없었고, 투어에 대한 면제도 없었다. 1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일본 공연에 갔을 땐 마음이 찢어졌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다행히 오늘날 오케스트라는 육아를 병행하는 음악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수유모에게 투어를 강요하지 않으며, 아이가 있는 경우 투어에 데려갈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혹은 파트너)의 여행 수당을 제공한다.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경우 모유 수유를 하면 출산 휴가를 1개월 더 받는다. 독일 오케스트라는 육아 휴직 1년간 월급의 65%를 받으며, 그 기간 동안 쉴지 공연에 참여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공연에 참여하면 추가 수당이 발생해 월급의 100%까지 보전된다. 음악가가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인상적이다.

###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현재의 기록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임신, 출산한 가수가 공연을 원할 경우, 그들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마술피리〉 공연은 출산한 지 6주 된 소프라노 캐스린 리웨크Kathryn Lewek가 밤의 여왕 역을, 셋째 아이를 낳고 복귀한 에린 몰리Erin Morley가 파미나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분장실에서 정기적인 수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근래 가장 인상적인 소식은 지난 6월 프랑스 몽펠리에 오페라에 오른 〈오르페오〉다. 연출 뱅자맹 라자르Benjamin Lazar는 캐스팅 후 아이를 가진 주역 소프라노 마야 케라니Maya Kherani를 두고, 아예 임산부라는 설정을 연출에 포함해 인물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케라니를 위해 의상팀은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드레스와 단화를 준비했다. 작품은 "전체적인 연출의 응집력 덕분에 개인의 한계가 지워졌다"고 호평받았고, 케라니는 공연 다음 달 무사히 출산했다.

이러한 복지 제도와 대응은 단체와 극장에 따라 그 속도가 다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출산 직후의 소프라노들을 포용한 것과 달리, 같은 해 함부르크 오페라는 〈마술피리〉 주역에 캐스팅한 소프라노 쥘리 푸슈Julie Fuchs가 임신하자 출연을 취소했다. 음악가들도 관련 법의 실효성을 체득하고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음악계가 겪은 다양한 사건들은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로 기록이 남는다. 하나하나의 사례가 점차 미래의 긍정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근거를 만들어 나간다. 카티아 부니티아슈빌리의 수유 영상이 단순한 관심 끌기를 넘어 큰 의미가 되는 이유 또한,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언젠가는 여성 음악가의 모유 수유가 공연 현장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날의 발판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 Column

**삶의 책장을 넘기며**

안녕이라는, 책으로 건네는 인사

**동시대적 고전 읽기**

이야기를 사랑한 사람들의 역사

**K-아트와 한국 미술 거장**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박서보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어설픈 작사론

illust ©slowrecipe

# 안녕이라는, 책으로 건네는 인사

**손정승** 『아무튼, 드럼』 저자

정신을 차려보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라진다던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땅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한 뼘 정도 둥둥 떠 있는 기분인데, 어떤 날은 왁자한 파티 같다가도 또 어떤 날엔 마음이 허해서 죄다 시큰둥하게 느껴진다.

문제는 너무 시큰둥한 나머지 평소에 좋아하던 책도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다. 그렇다면? 글자 수가 적고, 끊어 읽을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게 누군가에겐 만화일 테고, 짧은 에세이일 수도 있겠으나 시 또한 그렇다. 글자 수가 적다는 게 읽기 쉬움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기엔 뭐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문학동네 시인선이 200번째라는 숫자를 달았다. 문학동네는 문학과지성사·창비·민음사와 함께 한국 시집을 꾸준히 펴내는 대형 출판사인데, 200번이라는 숫자를 기념하며 두 권의 한정판 도서를 동시에 출간했다. 1번부터 199번 시집에 등장하는 시인의 말을 한데 묶은 『내가 아직 쓰지 않은 것』과 201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함께할 시인 50명에게 시란 무엇인지 묻고, 그들의 신작 시를 함께 담은 『우리를 세상의 끝으로』가 그 두 권의 책이다. 특히 『내가 아직 쓰지 않은 것』의 책값은 놀랍게도 3천 원이다. 대형 출판사가 할 수 있는 멋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와 고백하자면 시는 내게 늘 조금은 어려운 텍스트라, 첫 장에 있는 시인의 말만 읽고 크게 감동한 뒤 정작 그 안의 시들은 다음을 기약한 적이 많다. 단언컨대 나만 그런 것이 아닐 테다. 그래도 충분히 좋았다. 그렇게 시인의 말을 읽을 때면 '안녕'이라는 단어와 닮았다고 느꼈다. 첫 만남, 첫인사, 첫인상이자 시를 한데 모아 엮은 뒤 품에서 떠나보내며 쓰는 작별 인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끝과 시작에서 인사를 다르게 하지 않고 안녕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쓰는 것처럼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사가 단박에 반가우면 그 시집의 시들도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았다.

멀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헤어짐은 다른 의미의 마주침이다.
→82쪽, 『죄책감』 임경섭 시인의 말

오랜 시간 문학에는 밑줄을 치지 않으며 읽었다.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런데 얼마 전 집에 있던 아주 오래된 소설책에서 밑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지금은 심상히 넘겼을 문장들에 밑줄이 꼼꼼하게 그어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읽는 데 전혀 방해되지 않았다. 시선을 사로잡아 잠시 흐름을 끊는 그 밑줄들이 오히려 좋았다. 그때의 나는 무엇을 갈구했길래 여기에 밑줄을 쳤을까? 하며 지난 시간을 더듬었고, 여기까지 살아내서 다시 이 책을 읽는구나 싶어 스스로를 제법 기특하게 여겼다.

아름답게 용기 내어 여기까지 살아온
내가 고맙다.
→203쪽, 『여름 키코』 주하림 시인의 말

그래서 이번엔 시인의 말에 과감하게 밑줄을 그었다. 먼 훗날의 나를 웃기고 울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읽었다. 시는 무심히 넘기자면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건 글씨라고 읽기 십상이니까. 제각각 인사들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시인의 말 위에 적힌 시집의 제목도 살펴 읽었다. 마음에 든 건 다음에 읽을 시집으로 메모했고, 그중 몇 권은 집 앞 동네 책방에 가서 데려왔다. 시집의 제목은 아름답고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선뜻 손을 뻗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인의 말을 먼저 읽고 나니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든 알고 싶은 제목이 되었다.

연말이 되면 돈 나가는 일이 많아서 나도

모르는 새에 주머니가 홀쭉해진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시집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다른 책보다 값도 저렴하고, 한 구절을 빌려서 올해 받은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좋다.

실제로 내가 일하던 책방에서도 연말이면 시집 매출이 훅 뛰었다. 사람들이 흰 입김을 두르고 들어와 들뜬 표정으로 시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했다. 물론 누구를 만나는 대신 자신에게 선물해도 좋다. 그 과정에서 연말 특유의 뜻 모를 쓸쓸함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시를 읽는 시간은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니까. 시는 그것을 알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커다란 혼자
→177쪽,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장수양 시인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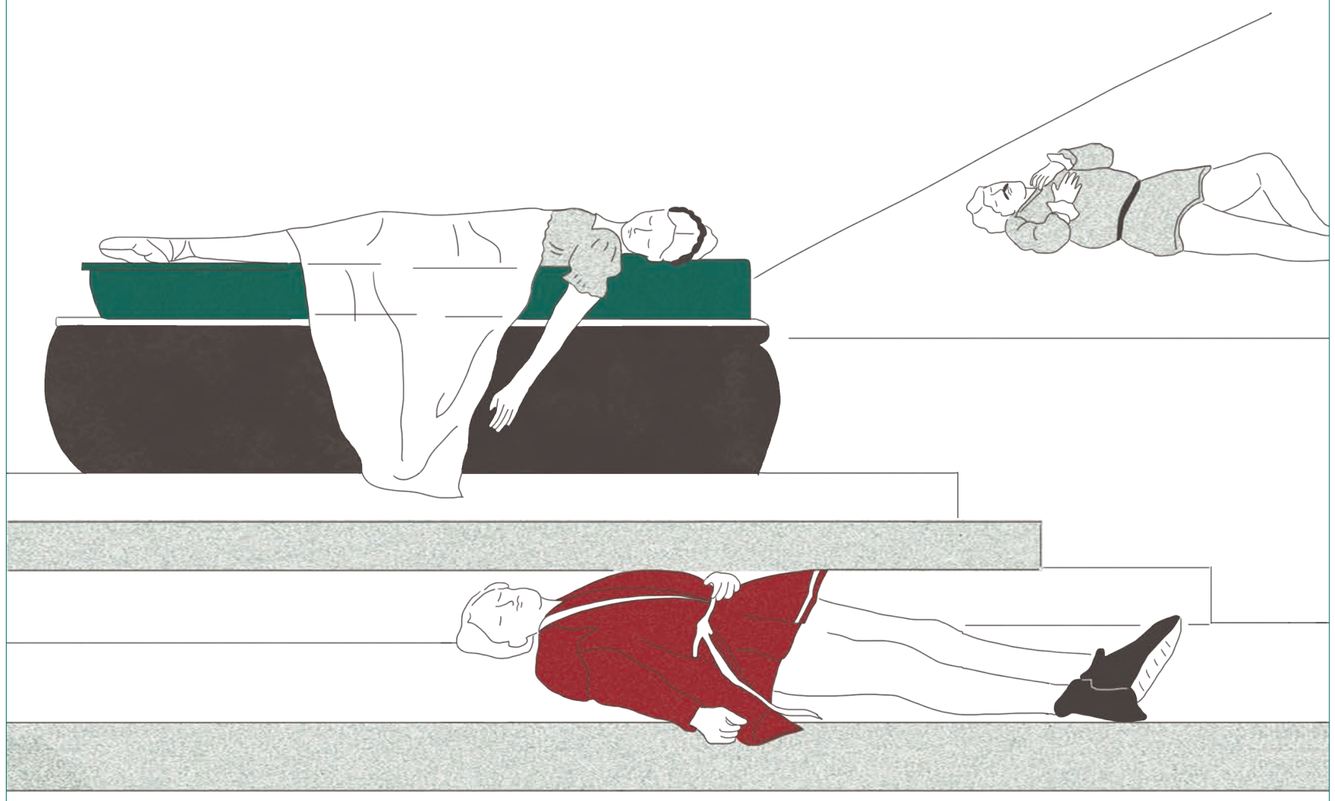
'삶은 책이다'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비유라 재미가 없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만큼 정확한 비유가 없지 싶을 때도 있다. 올해도 우리의 페이지는 어떻게든 넘어갔다. 까맣게 쓰인 페이지도, 어쩐지 비어 있는 페이지도 있을 것이며, 물을 엎질러 우그러진 곳과 커피 자국이 남은 곳, 어쩌면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몽땅 찢어버린 페이지도 있을 것이다. 모두 괜찮다. 다행히도 반드시 일 년에 한 번은 새롭게 쓸 수 있는 희고 깨끗한 페이지가 주어지니까. 그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곧 받을 새로운 페이지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채워보고 싶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가볍게,
→228쪽, 『수요일은 어리고 금요일은 너무 늙어』 천서봉 시인의 말

나중에 우리는 '나'라는 책의 맨 앞에 어떤 말을 쓰게 될까.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든다.

# 이야기를 사랑한 사람들의 역사

**전영지** 공연 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A4 용지 한 장을 꺼냅니다. 좀 더 크거나 작은 종이도 괜찮습니다. 아니 냅킨 한 장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비되었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립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어보지 않았어도, 공연이나 영화 버전을 보지 않았어도 대강의 줄거리는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반목하는 두 가문의 어린 연인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사랑을 상상하다,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멈춥니다. 무덤 장면 말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로런스 수사가 건네준 신비스러운 약을 먹고 가사假死 상태에 빠진 줄리엣이 안치된 그 무덤. 로런스 수사의 편지를 미처 전해 받지 못해 줄리엣이 진짜로 죽었다고 착각한 로미오가 미리 준비한 독약을 삼키고 쓰러지는 그 무덤. 뒤늦게 깨어난 줄리엣이 이미 숨을 거둔 로미오를 보며 단도를 꺼내 드는 그 무덤 말입니다. 저의 스승이자 멘토인 하워드 블래닝Howard Blanning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 장면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납골당을 꽤 그럴듯하게 그렸고, 누구는 빈 무대를 상상하며 가로로 선 하나를 쓱 그어놓기도 했지만, 거의 모두의 그림 속 등장인물은 두 명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니까요.

우리의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 셰익스피어의 의도였습니다. 극을 시작하며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 극이 벌어지는 아름다운 베로나에 명망이 엇비슷한 두 가문이 있었는데 (…) 이러한 두 원수의 숙명적인 몸에서 별들이 훼방 놓은 두 연인이 태어났고 그들은 불운하고 불쌍하게 파멸하며 부모들의 싸움을 죽음으로 묻었도다"라고. 관객·독자는 '두 가문', '두 원수', '두 연인'을 마음에 품고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무덤 장면, 그 무덤가에 놓여있는 몸은 사실 둘이 아닙니다. 로미오가 독약을 마시고 줄리엣이 단도를 꺼내 드는 그 모든 순간, '두 연인'의 죽음 직전에 죽음을 맞이한 한 사내가 두 연인과 함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어린 사내의 죽음이 두 연인의 죽음의 배경으로 자리하도록 셰익스피어는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고쳐 썼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1594-96은 셰익스피어가 새롭게 창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직접 참조한 것으로는 아서 브룩Arthur Brooke의 「로메우스와 줄리엣의 비극적 역사The Tragical History of Romeus and Juliet」1562와 윌리엄 페인터William Painter의 「기쁨의 궁전The Palace of Pleasure」1566이 언급되곤 하지만, 이 작품들도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수사이자 작가인 마테오 반델로Matteo Bandello, 1554와 루이지 다 포르토Luigi Da Porto, 1531가 더 일찍이 이 이야기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 생을 마감하고 마는 어린 연인의 사랑 이야기의 진짜 시작, 즉 '원조'를 추적하자면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 소개된 바빌로니아 신화 「피라모스와 티스베Pyramus and Thisbe」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원조 찾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다시 셰익스피어가 쓴 '무덤 장면'으로 돌아올까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시체 곁에 놓여 있는 어린 사내, 줄리엣의 구혼자로서 줄리엣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납골당을 찾았다가 로미오와 결투를 벌이는 그 사내, 로미오에게 줄리엣 곁에 뉘어 달라고 청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내, 파리스 백작은 이전의 이야기들에는 없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파리스는—로미오의 친구 머큐쇼와 함께—셰익스피어가 추가한 인물입니다. 허니 셰익스피어가 정말로 쓰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가정도 그리 과한 억지는 아닐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극을 시작하자마자 '두 가문의 두 연인'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공표해놓고도, 정작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독자·관객으로 하여금 '세 구'의 시체와 마주하게 하는 셰익스피어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찌하여 두 가문의 오랜 반목 때문에 이와는 전혀 무관한 머큐쇼와 파리스도 목숨을 잃게 되는 걸까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머큐쇼와 파리스는 같은 집안사람입니다. 베로나의 군주, 에스칼루스 대공의 친척들이지요. 하여 모두가 죽고 난 후 "나 또한 당신들의 불화에

눈 감은 대가로 한 쌍의 친척을 잃었다"고 대공은 말합니다. 더욱이 로미오의 친구인 머큐쇼는 말할 것도 없고, 파리스 또한 어린 사내로 짐작됩니다. 10대 중반의 줄리엣은 파리스를 "젊은 백작youthful lord"이라고, 로미오는 "젊은 양반gentle youth"이라고 부르니 말입니다. 결국 몬테규와 캐플릿, 두 집안의 오랜 반목은 그 집안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군주 가문 젊은이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남겨진 벤볼리오를 제외하고 베로나의 모든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이 도시는 미래를 잃은 셈입니다.

하워드 선생님은 셰익스피어 당대에 오래도록 반목했던 '두 가문'에서 셰익스피어의 속셈을 읽어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John Shakespeare, 1531-1601 또한 평생을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물들처럼 반목하는 두 세계로 인해 요동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여러 번 영국을 통째로 뒤흔든 시절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이지만, 자세한 설명은 역사책에 맡기고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영국의 국교는 1534년, 1556년, 1558년 세 번에 걸쳐 변경됩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신교에서 다시 가톨릭으로, 그리고 또다시 개신교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는 무너졌으며, 벗들 간의 우정은 깨졌고, 가족들의 관계는 산산이 갈라졌으며, 개인들의 내면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포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저명한 셰익스피어 학자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은 그의 저서 『세계를 향한 의지Will in the World: How Shakespeare Became Shakespeare』2004에서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아버지는 종교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끈 공직자였으며, 어머니는 골수 가톨릭교도였다고도 소개합니다. 결국 오래도록 반목하는 두 세계가 빚어내는 비극을 셰익스피어가 몰랐을 리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구교와 신교의 오랜 갈등이 영국 전체를 얼마나 휘청하게 만들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군주'에게 경고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가문'의 오랜 반목은 당신의 집안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워드 선생님의 가설이었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숨은 의도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수형의 도끼날과 화형의 횃불을 피해 '사랑 이야기'에 꼭꼭 숨겨놓은 그 속마음을 어딘가에 남겼을 리 만무하니까요. 허나 분명히 셰익스피어는 당대에 알려져 있던 어떤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없던 인물들을 창조해 그들을 로미오와 줄리엣 곁에 뉘었습니다. 첨예한 정치 풍자극으로 독해될 위험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요. 하워드 선생님의 수업 속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적으로 읽어낸 고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전'이라고 칭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조차 이미 당대를 위해 새로이 고쳐 쓴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 시대를 마음에 품고 고전을 적극적으로 새롭게 읽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변형되고, 변주되고, 오염되는 것이 이야기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 계속 살아 있게 하는 것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박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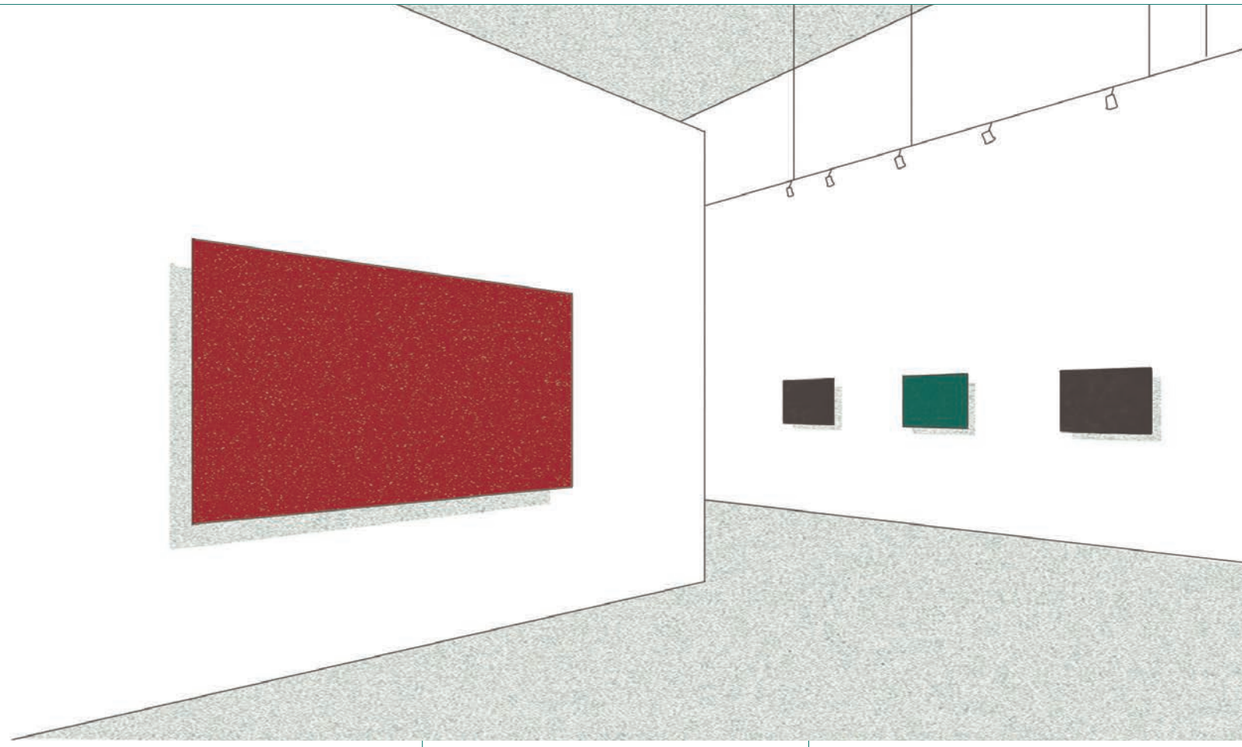
**박현주** 뉴시스 미술전문기자

우리나라에 이런 화가가 있었다. 손은 시퍼렇게 멍이 들기 일쑤였다. "붓을 쥐고 연필을 쥐고 하니 손이 시들시들하더니 이 속에서 핏줄이 터진 거야." 날마다 여섯 시간 이상을 그림에 매달렸다. 긋고 지우고 긋고 지우고… 지난 2월에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항암 치료도 거부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냥 그림을 그려보자.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는 게 낫지."

파킨슨병까지 겹쳤다. 캔버스에서 달달 떨리는 손.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리면 돼." 기침도 잦아졌다. "죽을 때가 되었구나." 웃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잡아가려면 할 일 적은 놈 잡아가지. 나처럼 할 일 많은 놈 먼저 데려가려고 하나."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 지난 10월 14일 92세 일기로 별세했다. "아직 죽기는 참 억울하다"며 연필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가 세상을 어떻게 떠났는지를 생각하면





쓸쓸해진다.

갑자기 몸이 허약해져 병원에 입원한 박 화백은 금방 나을 줄 알았다. 며느리에게 "나가면 작업할 게 너무 많다"며 "(캔버스) 배접해 놓아라" 하는 당부는 마지막 말이 됐다. 이틀 후 그는 벚꽃이 피는 날 환히 웃으며 찍은 영정 사진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미술=박서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바로 제가 훗날 이 나라의 대가가 된다'고 자신만만하며 화가로서 승승장구했다. 작품이 팔리지 않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말도 했다. 중국 유명 미술평론가 황두黃篤가 "한국에 위대한 작가 박서보가 있다. 중국 작가들이 한국의 박서보를 가장 닮고 싶어 한다"는 글을 발표했을 때다. 당시 그는 "나는 애당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처음으로 알아챈 놈이 있구나"라며 의기양양했다. 2010년 인터뷰 때는 자신이 곧 "100만 달러, '밀리언 달러 작가'가 된다"고 했다. 당시에 그 말은 그저 자신감에 찬 허세로 들렸다.

언제나 '누가 뭐래도 내가 1등', '아시아 최고 작가'라며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에 찬 말은 사람들을 질리게 했지만, 그 말들은 모두 이뤄졌다. 2012년부터 그의 오래된 '묘법'이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다. 10년 전보다 작품값이 20배 상승했다. 2017년 5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묘법 No.10-79-83〉이 한화 약 14억 7,400만 원에 팔리면서 밀리언 달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붓을 놓는다'는 팔순 이후부터 후끈한 봄날이 이어진 행복한 화가였다. 별세 전 열린 소더비 홍콩 10월 경매에선 1975년 작 '연필 묘법'이 한화 약 35억 원에 낙찰, 작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60년 역사를 관통한 '연필 묘법'은 박서보의 브랜드다. 1967년 둘째 아들이 3살 때였다. "국어 노트가 방안지처럼 되어 있잖아. 칸 속에 '한국'이라는 것을 쓰려고 하는데 칸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저도 그걸 아니까 화가 나지. 에이익 하고 슥슥 그어버리더라고. 그걸 내가 보면서 저게 체념이로구나. '연필 묘법'은 걔(아들)를 흉내 낸 거야."

그는 지난 3월 제주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 서귀포시 JW메리어트호텔에 짓는 박서보미술관 기공식에 참석, 환한 웃음을 짓고 창작에 더욱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이곳(박서보미술관)을 찾는 모든 이가 제주의 자연과 함께 예술과 호흡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기뻐했다.

생전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로 불렸다. 20대부터 2009년까지 매일 14시간 작업했다는 말은 미술계에 전설처럼 남았다.

"내 예술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과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거든. 그림은 수신하는 도구"라고 늘 강조했다. "수신을 하기 위한 수행의 도구, 수행 과정의 찌꺼기가 그림"이라며 자신을 담금질했다. 모습도 스님처럼 변해갔다.

"슬럼프 수없이 겪었지." 끈질긴 화가였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연필 작업을 1986년에 그만두거든. 그런데 1982년부터 한쪽에서 한지 작업을 하는 거야. 밤에 나만 보는 데서…."

"세상에 계속 변해가잖아. 나만 정지됐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 예술은 시대를 표현하는 거니까. 시대가 변하면 나도 함께 변해가야 옳다는 거지." 예술은 손재주의 표현이 아니다. "끝없는 반복 과정의 행위 반복을 통해서 순화가 되어간다"는 것. "물감을 지우는 작업, 인격이 이뤄져야 예술이 이뤄지는 거야. 품격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예술이 나타나는 거거든."

좋은 예술가나 좋은 지도자는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지구가 병동화된다면서 "그러면 화가로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사람들을 치유해야겠구나. 그것이 예술의 역할이고, 나는 늘 관찰하면서 느끼는 거지"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게 '색채 묘법'이다. "자연의 색을 치유의 도구로 끌어들이자. 내가 처음에 '공기색'으로 이름 붙인 작품이 있어. 하늘색하고 바다색을 교묘하게 배합하면서 흰색을 많이 섞어서 제작했지. 제작해 놓고서 그림을 보니 내가 심호흡을 하고 있더라고. 휴~"

작업실에는 배접된 캔버스들이 잔뜩 쌓여 있다. 1년 전 저걸 어떻게 하냐고 묻자 무심하게 말했다. "몇 년 걸려서라도 해내겠다는 거지. 그래도 상관없어. 할 거니까." 그는 하늘에서도 긋고 지우고 긋고 지우고 긋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을 것 같다.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변화해도 추락한다." 묘비에 새겨진 그의 어록. 그때는 채 알아듣지 못했다. 모든 인간사 공포를 뚫고 나온 명언이다.

# 어설픈 작사론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보고 읽을 때 좋은 글과 부르고 말할 때 좋은 글은 다르다. 지난 호에서 가사 이야기를 꺼낸 김에 조금 더 이어가보려고 한다. 작사가로서 나는 보고 읽을 때 좋은 글에서 도무지 벗어나기가 어렵다. 흰 종이 배경에 틀린 글자 없이 열을 맞춰 정갈하게 완성된 글을 보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작사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다. 본분을 망각한 나는 누군가 내가 써놓은 가사를 읽으며 감탄해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멋진 '들림'을 위해 애쓰긴 하지만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국어 시간을 좋아했고, 그 덕에 수능 시험에서 유일하게 언어 영역만 1등급을 받았으니 나는 아주 오래 맞춤법에 맞는, 비문이 없는 글을 쓰는 훈련을 착실히 받아온 셈이다. 그런데 그 모든 논리와 맥락보다 소리의 영역을 우선하려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좋은 가사란 무엇인가. 요즘 느끼는 바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사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로는 느낌이 좋아야 한다. 이때의 느낌이란 뉘앙스, 어감, 말맛 같은 것을 의미한다. 멜로디에 착착 붙고, 입에도



착착 붙는 그런 느낌 좋은 가사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이 꽤 함축적이어서 곱씹을수록 의미도 좋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표현들이다. 첫 번째 조건인 뉘앙스와 어감만 좋다면 경박해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인 의미만 훌륭하다면 영 재미가 없어 듣는 이의 흥미를 일으키기 어렵다.

첫 번째 조건을 좇다 보면 두 번째를 놓치기가 쉽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한 훌륭한 가사도 많다. 잘 쓰는 작사가의 가사는 듣는 이와 글로 만나지 않는다. 그림으로, 하나의 장면으로 만난다. 듣기만 해도 그 서사가 눈앞에 이미지로 펼쳐진다. 그리고 그 안에 몰입하면, 반복해 듣다 보면 그 세계를 더 사랑하게 된다.

내가 쓴 가사 중 승희(오마이걸)의 〈Dear My Nights〉라는 곡이 있다. 스스로 뿌듯한, 가장 아끼는 곡이다. 획일적인 입시교육 체제 속에 꿈을 잃고 지쳐가는 십 대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썼다.

나란 나란하게 선을 맞춰서 마냥 헤아려지는
내 미래 / 낯선 모양으로 부푼 이 마음 다시
반듯이 반듯이 착하게 다려 / 같은 타임라인
위에 뽀얀 얼굴들 자꾸 생기를 더 잃어가
서로가 다른 밤을 숨겨 온 걸 / 삐죽 튀어나온
발끝 용기를 디뎌 상상이 아냐 밤을 밝혀

꽤 창의적인 표현들로 나름의 세계를 잘 그려 보였다고 자평하지만, 이 세계가 듣자마자 눈앞에 장면으로 펼쳐지느냐, 묻는다면 아쉽긴 하다. 부르기에 어색하지 않고, 읽었을 때 꽤 멋진 대목들이 있지만 '듣기'와 '상상하기'가 더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김이나 작사 IVE(아이브)의 〈I AM〉은 성공 사례다. "너는 누군가의 Dreams come true / 제일 좋은 어느 날의 데자뷰 /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뷰"는 예쁘고 멋진 단어들의 집합이자 이것들로 구성된 문장은 되새길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가사의 좋은 예시다.

최근에는 그룹 멤버 방찬·창빈·한이 공동 작사한 Stray Kids(스트레이 키즈)의 〈특〉이라는 곡을 들으면서도 감탄했다. "여긴 Seoul 특별시"라는 가사로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후 "가려진 별들 사이 떠오르는 특별", "특별의 별의 별의 별의 별의 별의 별의 별난 놈 That's me", "class는 특" 같은 가사들이 이어진다. 이 곡의 가사는 글이 아니라 음악이다. 서울특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하는 뮤직비디오와 함께 감상하면 더 재밌다. '특별'과 '특'과 '별'이 각각 쪼개져 어감으로도, 의미로도 제 기능을 한다.

시대를 확 건너뛰어 보자면, 대중음악 분야에서 훌륭한 가사로 종종 언급되는 곡으로 박주연 작사 김민우의 〈입영열차안에서〉가 있다. 도입부 몇 줄만으로 듣는 이들을 특정 상황에 단숨에 데려다 놓기 때문이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라는 첫 줄은 어색하다는 표현이 가진 의미와 어색해'진'의 어미에 담긴 화자의 상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마음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대상이 전부 드러나는, 그야말로 대중음악사에 길이 기록돼야 할 명인의 작문이다. 작사가인 박주연이 최근에 쓴 성시경·나얼의 〈잠시라도 우리〉를 들으며 이 글을 쓰고 있다.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 갔을 뿐 우릴 울리려 떠나간 건 아냐" 같은 어른의 표현을 나도 십 년쯤 흐르면 가져볼 수 있을까.

작사의 세계란 그 재미가 무궁무진하다. 나는 늘 전투적인 자세로 잘 해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전투는 패배의 순간까지 포함해 재미있었다. 더 궁금한 이가 있다고 하면 들려줄 이야기도 많다.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 COMMENTS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이 소개된 11월호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특히 '픽셀에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의 인터뷰가 흥미로웠어요. 인터뷰 내용에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핵심이 들어 있어 마치 작품을 해석하는 힌트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정유미** 님

## THANKS TO

월간지를 만들다 보면 1년이란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365일이 아니라 규칙성 있는 12개의 챕터처럼 말이죠. 올해의 마지막 호 편집을 하는 동안 야속한 시간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내년을 맞이하는 설렘이 오가며 생각이 많아졌나봅니다.
12월호를 시작으로 함께하게 된 안미영 담당자를 기쁘게 맞이하며, 12월호를 끝으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될 연재인 담당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 EPILOGUE

감기의 후유증으로 말을 하면 기침이 심해진다.
글을 읽는 데는 마침 묵언수행이 딱인지라
마감은 무사히 할 수 있었다.
새로 온 씩씩한 담당자 환영 인사도
새로운 곳으로 떠난 담당자에 대한
아쉬움도 글로 남긴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전민정** 편집위원

## EPILOGUE

이번 호부터 새롭게 〈문화+서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마지막 한입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고심하는 편입니다. 맨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제 일상에 꽤 오랜 잔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합류하여 펼쳐질 〈문화+서울〉도 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순간까지 아껴 먹고, 기분좋게 곱씹고 싶은 그 무언가이길 감히 소망해 봅니다.
**안미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GOODB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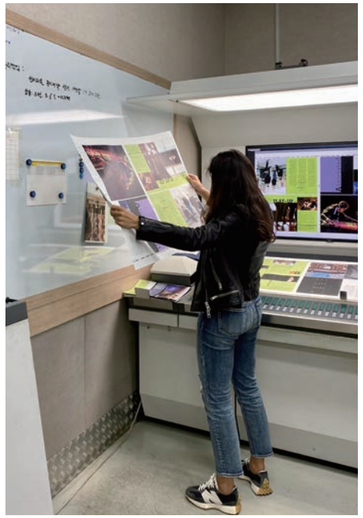
[문화+서울] 업무를 좋아할 수 있었던 건 같이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편집장의 역할로 저에게 배움과 자유를 주신 두 팀장님, 옆에서 응원을 보내줬던 팀원들, 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해주신 편집부, 글과 사진으로 문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필진과 사진작가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눠주신 인터뷰이분들, 그리고 재밌게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새로운 시간에도 모두 평안하시기를요 :)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노들섬사업팀

## CONTRIBUTORS

잘 지내나요?(재인 씨) 노들섬에서도 문화+서울 마감만큼 즐겁게 일하기를 바라요~
**손민지** 디자인이끼 아트디렉터

## LAST SCENE

2023년 마지막 호를 기쁘게 마치며. 시간이 된다면 인쇄소에 직접 감리 가보고 싶다고 했던 그를 생각하며.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을 전해주신 분께는 [문화+서울]을 일 년간 보내드립니다.